근대계몽기 잡지의 창간취지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유 정

근대계몽기 잡지의 창간취지서 연구

지도 한 영 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유 정

신유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한영균 인

심사위원 서상규 인

심사위원 한송화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1월 일

차 례

국문 요약 …… iii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선행 연구 검토 …… 3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4

2. 근대계몽기 잡지의 특성과 의의 …… 8

2.1. 근대계몽기 잡지 발간의 역사와 배경 …… 8

2.2. 근대계몽기 잡지의 분류 …… 11

3. 창간취지서의 서사 방식 분석 …… 14

3.1. 순한문 계열 …… 14

3.2. 국한혼용문 계열 …… 17

3.2.1. 국한혼용문의 유형 …… 18

3,2.2. 한문의 해체와 변화 양상 …… 21

3.2.3. 서사 방식의 다양성 …… 25

3.2.4. 현대 국어 어휘 형성의 측면 …… 28

3.3. 순국문 계열 …… 32

4. 창간취지서의 글쓰기와 취지, 독자의 관계 …… 35

4.1. 재일 유학생회지와 교지 …… 36

4.1.1. 재일 유학생회지 …… 36

4.1.2. 학교 잡지 ····· 47
4.2. 단체 기관지와 학회지 ····· 51
4.2.1. 정치 단체 기관지 ····· 51
4.2.2. 지역 중심 학회지 ····· 56
4.3. 전문지와 종합지 ····· 63
4.3.1. 이공계 전문지와 법학 전문지 ····· 63
4.3.2. 종합 잡지 ····· 70
4.4. 교육지와 계몽지 ····· 75

5. 결론 ····· 81

참고문헌 ····· 85
Abstract ····· 88

국 문 요 약

근대계몽기 잡지의 창간취지서 연구

본 연구는 근대계몽기에 저작된 잡지의 창간취지서의 글쓰기를 살펴보고, 서사 방식과 창간 취지, 대상 독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189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창간된 잡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근대계몽기 잡지 발간의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잡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창간취지서를 서사 방식에 따라 순한문, 국한혼용문, 순국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근대계몽기의 창간취지서는 다수가 국한혼용문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세분화하기 위해 한영균(2013)의 분류를 활용하였다. 창간취지서의 국한혼용문은 1유형과 4유형에 걸쳐 나타나며, 기존의 한문 글쓰기가 해체되는 변화 양상과 현대 국어 어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4장에서는 3장의 서사 방식 검토 내용을 토대로 창간취지서의 서사방식과 취지, 대상 독자, 어휘적 특성을 면밀히 고찰했다. 용이한 분석을 위해 잡지를 창간 취지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다. 신문학에 접근이 용이했던 유학생지와 전문지는 대부분 3유형의 국한혼용문을 선택했고 다수의 신어(新語)를 포함했다. 교지와 기관지, 학회지는 폐쇄적인 지식인 집단의 필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의 영향으로 한문에 가까운 1유형과 2유형의 국한혼용문을 선택했다. 교육지와 계몽지는 다루는 지식의 수준, 대상 독자층의 문식성(文識性)과 지식 수준을 적극 고려하여 비교적 쉬운 3유형의 국한혼용문이나 순국문의 서사 방식을 선택했다. 근대계몽기의 잡지의 창간취지서는 발간 취지와 대상 독자

의 지식 수준에 따라 다른 서사 방식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창간취지서, 근대계몽기, 잡지, 서사 방식, 독자층, 국한혼용문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근대계몽기는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서구사상과 문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근대계몽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를 19세기 개항 이후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로 보았다.[1] 국어사적 관점에서의 근대계몽기는 표기에서 한문과 일본어의 간섭을 받았고, 문체와 어휘, 서사 방식 등이 매우 혼재되어 나타났다. 근대계몽기의 글쓰기 양식은 일정한 모습이나 규칙성을 형성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자료를 다루는 연구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근대계몽기는 개항 이전의 한문 글쓰기와 지금의 글쓰기를 잇는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 한국어 글쓰기 방식이 성립되는 데 밑바탕이 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글쓰기를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대적 글쓰기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근대계몽기의 글쓰기에서 문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 시기의 문체는 글쓰기 목적이나 서사방식의 변화, 글의 전달 매체, 대상 독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글은 이 중에서 서사 방식에 초점을 두어 창간취지서의 글쓰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사 방식이란 기본적으로는 글이 어떤 표기 수단으로 되어있는가를 가리킨다. 그러나 근대계몽기 글

1) 현대의 한국어가 성립된 기간은 신문물과 신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개항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한국어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시기 전반을 가리킨다. 특히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 즉 개항부터 1910년 우리말이 국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술국치까지를 현대 한국어 태동기로 이름한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태동기에 발간된 잡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실제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첫 잡지인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1896)부터 다뤄진다.

쓰기에서 서사 방식의 선택은 필자가 지향하는 글쓰기 모델의 반영이며, 필자가 선택하는 글의 전달 매체 및 그 매체가 상정하는 대상 독자층과 관련이 있다. 근대계몽기에 창간된 잡지는 당시의 특성상 ‘애국’과 ‘계몽’이 주된 담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을 접하는 독자의 문식성(文識性)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독자에 대한 고려가 국한문 혼용과 같은 근대계몽기만의 독특한 서사방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고는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잡지를 자료로 삼아 당시의 글쓰기를 살펴본다. 잡지의 다양한 텍스트 중에서도 ‘창간취지서’를 대상으로 한다. 근대계몽기 잡지에 실린 텍스트는 한영균(2009: 31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제와 내용에 따라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전달하는 글’, 그리고 ‘소설’, ‘역사 · 전기물’ 등의 다섯 유형으로 나뉜다. 창간취지서는 잡지의 종류나 의도에 따라 글의 형식에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주장하는 글로 대상 독자에게 잡지를 읽도록 설득하는 목적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잡지의 창간호 맨 앞부분에 실리며, 한 편의 완성된 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창간취지서의 필자는 학회나 기관지인 경우 단체장이나 대표 1인이 작성하거나 단체의 발기에 참여한 발기인들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종합지나 상업 목적 잡지는 잡지사의 사장 혹은 편집인, 발행인이 작성한다. 창간취지서에는 해당 잡지가 갖는 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잡지에 실린 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잡지 창간호에 실린 창간취지서를 자료로 하여 서사 방식을 유형화하고 분석한다. 근대계몽기의 글쓰기가 현재의 글쓰기의 시초이자 토대임을 전제로 두고, 취지서의 문체와 국어학적 특성, 그리고 당시 취지서 글쓰기와 독자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근대계몽기의 글쓰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글쓰기의 저변에 놓인 지식인 필자의 대상 독자와 문체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근대계몽기의 국어에 대한 연구는 이기문(1970)과 남기심(1977)의 연구로부터 출발한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에서는 개화기 국어의 형태, 어휘, 문법, 자료, 음운의 변천을 개괄하여 연구했다. 특히 국한혼용문에 대한 연구는 김상대(1985)를 비롯하여, 심재기(1992)에서는 개화기 교과서의 문체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민현식(1994ㄱ, 1994ㄴ)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개화기 국어 문체를 국한문체와 한글체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김형철(1994)은 성서와 신문, 독본을 토대로 국한문체의 어휘 요소와 구문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후 홍종선(1996, 2000), 김흥수(2004), 임상석(2008), 한영균(2013) 등의 연구를 거쳤다.[2] 문체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국한문체의 변이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한문체 텍스트를 몇 가지 유형의 문체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근대계몽기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근대계몽기 잡지를 소재로 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택한다. 잡지에 실린 글 중에서 단형서사 등과 같이 특정 장르만을 선택하여 살펴보는 연구, 한 종류의 잡지 혹은 같은 단체에서 발간된 잡지만을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한 연구, 유학생 회지나 여성전문잡지 등 같은 주제나 장르에 속하는 잡지 몇 종류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 특정 필자가 쓴 텍스트만을 주목하는 연구, 해당 시기에 발간된 잡지의 문체나 문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등이 있다.

기존연구는 독본부터 신문, 소설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를 일부 선택하여 폭넓게 연구하여 근대계몽기 문체 전체를 개괄하는 데 힘썼다. 혹은 특정 단

2) 근대계몽기의 국한혼용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3.2.1.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체나 학회, 혹은 단일 매체에 집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잡지 텍스트의 장르 측면에서는 단형 서사나 소설, 산문과 같은 문학을 제외하고는 논설문에 치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의 특정 장르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근대계몽기 국어의 모습을 보이는 자료는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대계몽기에 본격적으로 태동하였고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 매체인 신문과 잡지류, 개화의 영향으로 활발하게 간행된 성경과 불경언해서 등을 비롯한 종교 관련 문헌, 근대 제도의 수립과 함께 학교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이 시기에 특히 많이 간행됐던 국어 독본이나 사전 등의 학습서류, 신소설과 번역소설 등의 문학류, 역사 · 교육 · 상업 · 경제 · 정치 등 각 분야를 다룬 전문 서적류 등이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도 근대계몽기에 활발하게 간행됐던 잡지를 다룬다. 지금까지 근대계몽기 언론매체에 대한 연구는 잡지보다도 신문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문한별(2009: 18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잡지는 언론 매체라기보다 발간한 단체의 사상이나 지침, 강령을 배포하기 위해 발간됐다는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대계몽기의 잡지는 근대 교육 계몽 및 자강운동과 독립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학회와 단체의 기관지적 성격을 지닌 것이 많다. 그러나 잡지가 한 단체의 사상이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매체로서만 기능한 것은 아니다. 잡지는 주로 학회의 구성원들이 필진이 되어 학회 구성원을 위해 발간하였지만, 창간취지서의 발행 취

지를 살펴보면 잡지의 내용이 해당 단체를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작용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잡지에 수록된 글 역시 일반 독자를 계몽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재일 유학생회지는 일본을 넘어 국내의 독자층이 더욱 넓었던 것을 볼 때, 당시 잡지의 독자층은 특정한 집단이나 대상에 국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잡지의 창간호에 실린 창간취지서를 대상으로 한다. 근대계몽기의 잡지는 일반적으로 '논설(연단) - 교양 - 문예 - 잡저' 등의 편집 체제로 구성되지만, 잡지마다 체제와 기사의 배분이 천차만별이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는 창간취지서는 어떤 체제와 취지를 갖는 잡지라도 반드시 창간호 서두에 싣는 글이다. 또한 해당 학회의 사상과 잡지 발간 목적의 집약체이며 정수를 담고 있는 글이다. 창간취지서에는 해당 잡지에 대한 발행 주체의 발간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잡지가 지향하는 글쓰기 목적과 대상으로 삼는 독자는 물론이고, 발행 주체의 시대에 대한 이해와 상황인식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의 창간취지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근대계몽기 지식인들의 글쓰기 특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현대 국어 태동기인 1896년부터 1910년에 걸친 시기에 간행된 잡지의 창간취지서만을 추출한 것이다. 대상 잡지들의 목록과 발간 현황을 [표 1]로 제시한다.[3] 가능한 많은 잡지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창간호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탈자가 많은 것, 그리고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부 잡지는 제외하였다.

---

3) 잡지 목록은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선별 및 정리하였다.
김근수,「구한말잡지개관」, 『아세아연구』, 10권 3호, 1967년.
이현희,「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1999.
문화재청,『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2010년.

〈표 1〉 창간취지서 연구 대상 잡지 목록

잡지명	발행연대	발행호수	창간호 원본 소장처
친목회회보	1896.2 - 1989.4	6	아단문고, 서울대 도서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6.11 - 1897.8	18	아단문고, 서울대 도서관
신학월보	1900.12 - 1907	5	-
일진회회보	1904.7	1	연세대 도서관
수리학잡지	1905.12 - 1906.9	8	아단문고
조양보	1906.6 - 1907.1	12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자강회월보	1906.7 - 1907.7	13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태극학보	1906.8 - 1908.12	26	아단문고, 고려대 도서관
소년한반도	1906.11 - 1907.4	6	서울대 · 연세대 도서관 등
서우(서우학회월보)	1906.12 - 1908.5	14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공수학보	1907.1 - 1908.3	5	아단문고
야뢰	1907.2 - 1907.7	6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대한유학생회학보	1907.3 - 1907.5	3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친목(보전친목회보)	1907.3 - ?	9	연세대 도서관
대한구락	1907.4 - 1907.7	2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대동보	1907.5 - 1908.1	6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법정학계	1907.5 - 1909.1	22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동인학보	1907.7	1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한양보	1907.9 - 1907.10	2	연세대 도서관
낙동친목회학보	1907.10 - 1908.1	4	고려대 도서관
자신보	1907.10	1	연세대 도서관

잡지명	발행연대	발행호수	창간호 원본 소장처
장학보(장학월보)	1908.1 - 1908.5	5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대한학회월보	1908.2 - 1908.11	9	아단문고, 서울대 도서관 등
대동학회월보	1908.2 - 1909.9	20	아단문고, 서울대 도서관 등
대한협회회보	1908.4 - 1909.3	12	아단문고, 서울대 도서관 등
녀즈지남	1908.5 - ?	3	기독교문사, 이화여대
서북학회월보	1908.6 - 1910.4	22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교육월보	1908.6 - 1909.3	10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호남학보	1908.6 - 1909.3	9	고려대 도서관 등
자선부인회잡지	1908.8	1	아단문고, 이화여대 등
기호흥학회월보	1908.8 - 1909.7	12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법학협회잡지	1908.11	1	연세대 도서관
소년	1908.11 - 1911.5	23	아단문고, 연세대 도서관 등
대도	1908.12	미상	-
공업계	1909.2 - 1910	7	서울대 · 고려대 도서관
대한흥학보	1909.3 - 1910.5	13	연세대 · 고려대 도서관
교남교육학잡지	1909.4 - 1910.5	12	아단문고
보중친목회보	1910.6 - 1910.12	2	보성고등학교, 서울대·연세대 도서관 등

2. 근대계몽기 잡지의 특성과 의의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잡지의 창간취지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잡지 발간의 특성을 살펴본다. 다양한 잡지를 쉽게 개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에서 이 시기의 잡지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잡지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근대계몽기 잡지 발간의 역사와 배경

우리나라에서 잡지의 등장은 개화기 서구 문물과의 접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880년대에는 인쇄소가 박문국(博文局)과 광인사(廣印社)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잡지와 같은 대량 출판물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4] 1890년대에 들어 내적으로는 서구의 신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구사상과 제도가 탈바꿈을 해야 했고, 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항하여야 했던 고난과 혼란의 시기를 맞는다. 이런 시국 상황에서 잡지 역시 타국과는 다른 모습의 매체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서양 선진국의 첫 잡지는 실용 위주였다면, 우리나라의 첫 잡지는 자주독립과 식산계몽을 외치기 위해 창간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잡지는 우리나라 나름의 특성을 갖추며 발전하게 되었다.

잡지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첫 잡지가 등장한 1896년부터 1910년까지를 한데 묶어 잡지사의 제1기 혹은 태동기로 구분한다. 이 기간은 우리가 '근대계몽기'라고 칭하는 시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즉, 근대계몽기는 잡지의 태동기이자 잡지 문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시행하기

4) 문화재청(2010: 146)

어려웠던 당시의 현실에서 잡지는 선진적인 지식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핵심적인 언론매체로 기능했다.

태동기 잡지의 경향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잡지 발간의 시기가 후반기 5년에 편중되어 있다. 태동기 15년간 발간된 잡지는 총 70여종에 달하는데[5] 그 중 초반 10년간(1896년 ~ 1905년) 발행된 잡지는 13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가 후반 5년(1906년 ~ 1910년)에 발행됐다. 1906년에 이르러 기관과 학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잡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 발간된 잡지들은 시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하게 된다.

둘째로 잡지의 발행에 있어 학회와 단체가 주도적이었다. 잡지발간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잡지사가 잡지를 발간하기에 앞서서 교회계통과 유학생, 학회와 단체가 먼저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과 함께 아직 독립된 잡지사가 홀로 설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6] 그렇다 보니 잡지의 일반적 속성인 상업적 목적을 띠지 못한 채 단체의 주장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했다. 단체에서 벌이던 학회 활동, 연설회 개최, 학교 설립 등의 활동과 더불어 '잡지 발행'을 학회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삼았다. 따라서 잡지에는 주로 서양의 신지식과 학문을 소개하거나 개화와 자강사상을 전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특정 학회나 단체의 회지로 발간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 범위는 단체 구성원에서만 머물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창간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당 집단 내에서의 지식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최종적으로는 동포와 국민에게 미치기를 바랐다. 따라서 잡지는 임상

5) 문화재청(2010)의 근대계몽기 잡지 목록 중 '영문/외국 선교사 발행 잡지'와 창간 시기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잡지는 제외함.
6) 한국잡지협회(1995: 9)

석(2006: 4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신지식의 전달 창구, 교육의 장으로 '사회 교육'의 구실을 수행했다. 학회와 단체는 비록 전문적인 잡지인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종합잡지와 전문지가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역사적인 환경의 특성상 잡지의 수명이 짧았다는 점이다. 근대적인 잡지의 형태를 갖춘 『소년』(1908)이 나오기 전까지 대략 35종의 잡지가 창간되었지만, 그 가운데 수명이 1년을 넘긴 것은 별로 많지 않았다. 통권 12호를 넘긴 것도 15종에 그친다. 잡지의 발행 지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장 컸는데, 상업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다보니 잡지 제작을 위한 수금이 어려웠다. 실제로 당시의 잡지들은 지면과 광고를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몇 잡지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종간 소식도 알리지 못한 채 잡지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치적 어려움도 있었는데, 1910년 일제의 총독통치에 의한 무단정치시대(武斷政治時代)가 시작되면서 출판물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고 많은 잡지가 발행되기 전에 압수되고 강제 종간되었다. 본고에서 다룬 잡지 중 1910년 이전에 창간되어 1910년을 넘긴 잡지는 『소년』 뿐이다. 이후 1919년 3·1운동까지의 10년 동안은 정치적으로는 무단정치 시대였으며 언론의 암흑기였다. 잡지는 신문이 거의 살아남지 못한 틈에서 민족 언론의 명맥을 가냘프게나마 이어 내려가게 된다.

2.2. 근대계몽기 잡지의 분류

잡지의 문체와 독자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나누어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근대계몽기의 잡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문화재청(2010)에서는 잡지를 발행인의 국적과 발행지를 중심으로 국내 한국인 발행 잡지, 국내 외국인 발행 잡지, 국외 조선인 발행 잡지로 삼분하여 소개했다. 국내의 한국인이 발행한 잡지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11)를 시초로 총 33종이며 태동기의 잡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정 단체와 학회의 기관지가 많고 『조양보』(1906.6)와 『소년한반도』(1906.11)와 같은 일부 상업지와 종합지가 포함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발행한 잡지는 다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발행한 잡지, 일본인이 발간한 일본어 학습 잡지, 조선 식민지화와 관련된 잡지로 나뉜다. 이 잡지들은 외국인이 발행하였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일한문 혼용 등 언어 선택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창간호가 현존하면서 영어 혹은 일본어가 섞이지 않은 잡지로 『신학월보』(1900.12)와 『한양보』(1907.9)가 전해진다. 국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발행한 잡지는 동경 유학생 발행 잡지와 기타 교민 발행 잡지로 구분된다. 동경 유학생 발행 잡지는 유학생 잡지의 시초인 『친목회회보』(1896.2)부터 유학생의 통합 단체인 『대한흥학보』(1909.3)까지 총 8종이 있는데, 모두 창간호와 창간사가 현존하므로 본고에서는 전부를 다루게 된다. 반면 교민 발행 잡지는 미주지역에서 종교단체를 근간으로 나온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잡지의 서지 사항이 불분명하고 발간 주기와 소장처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 전해지는 창간호가 거의 없다.

다음으로는 임상석(2008)에서 택한 잡지 분류 방법으로, 잡지를 발간한 단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임상석(2008)에서는 국한문체를 채택한 1906년에서 1910년 사이 간행된 잡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네 종류로 나누었다. 첫째는 정치결사의 기관지적 성격을 띤 잡지로 『대한자강회월보』(1906.7),『대한협회회보』(1908.4),『조양보』(1906.6),『대동보』(1907.5) 등이다. 둘째는 학회를 표방한 단체들이 발간한 잡지로 대부분이 특정 지방에 연고를 두고 발간됐다. 『서우』(1906.12), 『서북학회월보』(1908.6), 『호남학보』(1908.6), 『기호흥학회월보』(1908.8), 『교남교육회잡지』(1909.4)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일본유학생 단체가 발행한 잡지로 앞 문단에서 언급한 '조선인 유학생 발간 잡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한 잡지로 『소년한반도』(1906.11), 『야뢰』(1907.2), 『소년』(1908.11)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중진(2011)에서는 잡지가 선택한 문체를 기준으로 순국문체, 국한문혼용체, 순한문체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다룰 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국문체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 『가뎡잡지』(1906), 『교육월보』(1908), 『서우』(1906), 『소년한반도』(1906), 『신학월보』(1900), 『녀ᄌᆞ지남』(1908), 『자선부인회잡지』(1908) 등 8종을, 국한문체 잡지로는 『친목회회보』(1896), 『교남교육회잡지』(1909), 『기호흥학회월보』(1908), 『대동학회월보』(1908), 『대한유학생회학보』(1907), 『대한자강회월보』(1906), 『대한학회월보』(1908), 『대한협회회보』(1908), 『대한흥학보』(1909), 『서북학회월보』(1908), 『소년』(1908), 『수리학잡지』(1905), 『야뢰』(1907), 『친목』(1907), 『태극학보』(1906), 『한양보』(1907), 『호남학보』(1908) 등 17종을, 한문체 잡지는 2종으로 집계했다. 신중진(2011)에서는 근대계몽기 잡지를 문체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국한문체, 순국문체, 한문체 및 기타'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문체

를 확정할 수 없는 미상 잡지가 많아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마디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문체의 판단을 잡지 전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고의 창간취지서 문체 구분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대계몽기의 잡지의 다양한 분류 방식은 이 시기의 잡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분류 방식들은 연구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룰 특성에 맞추어 두 가지 분류 방식을 따른다. 3장에서는 서사 방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므로 마지막에 제시했던 분류 방식과 같이 창간취지서를 순한문, 국한문혼용, 순국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창간취지서의 서사 방식과 취지, 독자층의 관계를 고찰하므로 위의 세 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인 발행지와 발행인, 두 번째 분류 방식인 발행한 단체의 성격, 그리고 잡지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여 잡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계몽기의 창간취지서를 재일 유학생회지와 교지, 국내의 단체 기관지와 학회지, 전문 잡지사에서 발행한 전문지와 종합지, 교육지와 계몽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3. 창간취지서의 서사 방식 분석

근대계몽기의 글쓰기를 살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서사 방식이다. 이 시기의 서사 방식은 순한문 혹은 순국문, 그리고 한문과 한글이 섞인 국한혼용문까지 다양한 모습의 표기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시의 글쓰기에서 서사 방식은 단순히 표기 수단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필자가 추구하는 글쓰기 모델을 반영하면서 독자층의 계층과 수준까지 가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장에서는 창간취지서를 순한문 계열, 국한혼용문 계열, 순국문 계열로 나누어 살펴본다.

3.1. 순한문 계열

근대계몽기는 이전에 정립된 한문 글쓰기를 기반으로 두고, 그것을 해체하여 새로운 글쓰기 양식을 정립하는 혼란의 시기였다. 근대 이전까지 지식인들에게 한문은 지식인의 상징이자 문명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에 들어 순한문이 중심부에서 서서히 밀려나게 되고, 그 자리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국한혼용 표기 방식이 들어와 순국문 표기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잡지는 여전히 순한문 표기를 고수했다.

근대계몽기의 잡지 중에서 순한문 표기로 된 창간취지서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 『조양보』(1906), 『야뢰』(1907), 『대동보』(1907), 『대동학회월보』(1908)가 주 자료가 되었다. 잡지 발간 초기에 한문체를 택한 학술지의 경우 본문은 다양한 종류의 문체로 쓰였지만, 창간취지서만 한문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있다. 독립협회의 기관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

보』는 창간호에 순한글인 지석영의 〈국문론〉이 실렸고, 2호부터는 국한문체와 순한글로 된 기사만 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간호의 취지서와 회칙이나 본령에 관한 글만큼은 순한문으로 씌어졌다. 종합지인 『야뢰』와 『조양보』 역시 창간취지서만 순한문 표기를 택했고 잡지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는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학회월보』는 조금 다른 경우에 속한다. 1907년에 창간된 다른 잡지들이 식산과 계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부분 국한문체를 선택하던 것과는 달리, 잡지에 실린 글의 대부분이 한문체로 되어있다. 이는 한문체를 선택한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 凡 我卿大夫 士中外縫掖之人 合併老少 斟酌新舊, 老者溫舊學 而發新知, 少者設專校 而業課程, 巖阿儒門中年章甫之倫另聚一所 究經傳之大義 以倡斯道閱外國之書籍 以解執滯務要立體達用 守孔孟之宗旨 明事物之時宜 使正德利用厚生三者 並行不廢 則庶幾儒敎復明, 吾人免爲棄物 而全國同胞二千萬人族 共躋文明可以並駕於五洲世界矣.[7](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창간취지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대동학회월보』는 구학문으로 대별되는 유교(儒敎)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학문인 서구와 일본의 학문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취지서의 문면에 '경대부(卿大夫)'와 '선비'가 대상 독자로 설정되어있는데, 이 잡지가 높은 관직을 갖는 상위

---

7) 신기선(申箕善), 「大東學會趣旨書」, 『대동학회월보』 제1호, 1~2쪽, 1908. 2.
"무릇 우리 경대부와 도포 입은 선비들은 노소를 아우르고 신구를 헤아려, 노인은 구학을 옹호하여 신지식을 발휘하고 젊은이는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과정을 닦으며 숨어있는 유림과 중년 신사들을 특별히 한군데에 모아 〈경전〉의 대의를 강구하여 사도를 창수하고 외국의 서적을 열람하여, 막힌 데를 풀어 힘써 체를 세우고 용을 통하게 하여 공맹의 종지를 지키고 사물의 시의를 밝히며 '정덕, 이용, 후생' 세 가지를 병행하여 폐하지 않는다면 아마 유교는 다시 밝아, 우리들은 버려진 것에서 면하게 되고 전국 동포 2천만 인족은 함께 문명을 누려 5주 세계에 나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독자를 고려하기 위해 순한문을 고집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했던 동시대의 잡지는 전적으로 국한혼용문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대동학회월보』가 순한문 표기를 선택한 이유는 잡지에서 담지하고 있는 논조와 주장의 영향이 크다. 잡지의 '논설(論說)'에는 주로 한문교양과 문화에 대한 옹호를 담은 주장이 개진됐고, 그 논설에는 한문을 '亞文'이라 표현하면서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로서 한문은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8] 또한 당시 여타의 잡지와 달리 유학과 같은 전통 구학문 사상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굳이 국한문체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옛 학문을 담기 위해서는 한문체의 선택이 더욱 용이했을 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 이래로 한글이 공식 문자로 제정되면서 국문의 사용을 늘려나갔음은 분명하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한문이나 한문투의 표기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8) 이성민(2008: 173)

3.2. 국한혼용문 계열

본격적인 우리말 문장은 국한혼용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계몽기의 잡지 대부분이 국한혼용문으로 씌어졌는데, 이는 식산(殖産)과 계몽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시대적 명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구학문(舊學問)이며 비생산적이라고 지적받던 한문에서 벗어나서 신학문을 받아들여야 했던 시기였고, 잡지의 필자는 다양한 독자층을 수용하여 계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기의 변화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대다수의 잡지는 한문에서 국문으로 옮겨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한혼용 표기를 선택했다. 근대계몽기의 국한혼용문은 임상석(2008: 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식을 전달하고 논리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글쓰기를 담당하게 된다.

근대계몽기에 국한혼용문으로 된 창간취지서는 총 28종으로, 태동기 잡지의 시초인 『친목회회보』(1896)를 비롯한 7종의 일본 유학생회 발간 잡지, 『친목(보전친목회보)』(1907)과 『보중친목회보』(1910) 등의 학교 잡지, 『대한자강회월보』(1906)와 『서우』(1906), 『호남학보』(1908) 외 10여종의 학회지와 기관지, 『수리학잡지』(1905)와 『법정학계』(1907) 등의 전문잡지와 『소년』(1908)의 종합지 등이 있다.

국한혼용문 창간취지서의 서사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를 상세히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활용할 국한혼용문 문체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국한혼용문 창간취지서의 전반적인 표기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3.2.1. 국한혼용문의 유형

근대계몽기 글쓰기의 표기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문체와 국문체 사이의 과도기적 문체로 국한문체 하나만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한혼용문은 단일한 양상만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문문장에 단순히 토를 다는데 그친 문체부터 한자만 부분적으로 노출한 문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했다.[9)]

근대계몽기의 문체를 살핀 연구는 꽤 있지만, 국한혼용문만을 다시 세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다음과 같은 국한문체 연구들은 표기의 변이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한혼용문 텍스트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민현식(1994ㄱ, 1994ㄴ)에서는 김상대(1985)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화기의 국한문체를 '이두문식 국한문체(구절 현토식 국한문체)'와 '구결문식 국한문체(어절 현토식 국한문체)'로 나누었다. 이두문식 국한문체란 국어의 어순을 따른 어절식 국한문체로, 서유견문이나 공문서에 사용됐다. 구결문식 국한문체는 한글토만 빼면 그대로 한문구조가 되는 어순으로, 중세의 구결문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문체이다. 이 문체는 통감부 시기(1906 ~ 1910년)에 황성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 잡지에서 주로 나타난다.

홍종선(1996, 2000)은 국한혼용문의 유형을 '한문체, 한문구체, 한문어체, 한자어체'의 넷으로 가름하였다. 김흥수(2004)는 문체를 크게 셋으로 구분했다. 한문의 구문이나 어휘가 문체의 일부가 되는 '국한문 혼용체', 한문의 구문이나 어휘요소를 억제하고 국어를 살리는 '국한자 혼용체'와 '구

9) 배수찬(2008: 93)

결문식 한문체’로 가름했다. 임상석(2008)은 학술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국한문체를 분석했는데, 국한문체의 표기법 문법적 상황을 한주국종(韓主國從)에서 국주한종(國主漢從)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문체적 정비과정으로 해석했다. 문장의 통사구조와 수사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주국종(韓主國從)의 양상을 보이는 ‘1유형(한문 문장체)’, 국주한종(國主漢從)의 시도를 보여줬던 ‘2유형(한문 구절체)’, 국주한종(國主漢從)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던 ‘3유형(한문 단어체)’, 그리고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잡지 『소년』(1908)의 문체로 구분했다.

그런데 근대계몽기 국한혼용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국한혼용문이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문체로, 서사 방식이나 표기에 있어 일정한 전범이나 규칙을 성립하지 못한 채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더라도 그 유형을 벗어나는 텍스트가 존재한다. 또한 한 텍스트 안에서도, 심하게는 한 문장 안에서도 다른 유형의 특성을 보이는 부분이 섞여 있다. 따라서 연구자마다 국한혼용문의 분류에 있어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한혼용문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고자 한영균(2013)에서 제시한 국한문체 유형을 준거로 삼는다. 한영균(2013)에서는 국한문체의 객관적인 유형 분류를 가능케 하고자 텍스트에서 준거가 될 만한 언어 특성을 들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국한문체 유형 분류를 제안하였다.

1유형 한문 구문법을 기반으로 하되 국어 문법의 간섭 결과가 섞인 경우 (『신단공안(神斷公案)』 류)

2유형 국어 구문법이 기본이지만 구문적으로나 어휘적으로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개재되는 경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

3유형 구문적으로는 한문 문법의 간섭이 해소되지만 어휘적으로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남아 있는 경우 (『서유견문(西遊見聞)』 류)

4유형 3유형에 속하는 텍스트와 유사한 문체이지만 한영균(2011)에서 한문구 용언이라고 지칭한 예들이 쓰이지 않고, 고유어 혹은 한글 표기 한자어가 사용되는 경우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

5유형 4유형에 속하는 텍스트와 유사한 문체이지만 한국에서의 훈독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상의 표기 방식이 함께 쓰인 경우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류)

6유형(기타) 텍스트별로 독자적 방식에 의한 국한혼용문을 보여주지만 그 방식을 사용한 다른 예들이 유형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경우[10]

한영균(2013)의 국한문체 유형 분류는 앞선 연구에서 나아가 구문법과 한문 문법의 구문적 혹은 어휘적 간섭 여부를 기준으로 상세히 분류하였다. 여섯 가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류)은 기본적으로 한문 구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문장구성의 원리가 다른 유형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기 방식을 보면 다른 유형과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편이다.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류),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류),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은 1유형과는 달리 국어 문법을 기반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또한 이들 유형은 문장 구성 단위에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반영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세 유형의 특성과 변화를 밝히는 것이 국한문체가 현대 국어의 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는 데 핵심이 된다. 세 유형은 한문 문법의 간섭이 어떤 요소에 나타나는지를 세

10) 유형의 뒤에 명기된 문헌 이름은 각 유형의 전형적인 문체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문헌의 이름을 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명기한 것이다. 한영균(2013: 223,224) 참조.

부적으로 살펴 분류한다.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는 가)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를 한문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나)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체언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다)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용언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라) 기타(이두식 표현, 중복 표현) 등으로 상세히 제안하여, 2유형과 3유형, 4유형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는다. 5유형과 6유형의 경우는 실제 그 자료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현대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한혼용문 창간취지서는 1유형부터 4유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한영균(2013)에서 제안한 1 ~ 4유형의 국한혼용문 유형을 잡지 창간취지서 텍스트에 적용하여 살펴본다. 각 유형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창간취지서의 전반적인 표기 방식의 변화를 몇 가지 특징에 따라 살펴본다.

3.2.2. 한문의 해체와 변화 양상

국한혼용문은 순한문과 순국문의 경계에 놓인 과도기적 산물로, 창간취지서의 국한혼용문은 1유형에서 4유형으로 나아가며 한문 구문법의 간섭을 해소하여 나간다. 각기 다른 국한혼용문 유형으로 된 창간취지서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을 비교하면 문체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ㄱ. 維我洛東親睦會ㅣ 發呱呱之聲 於扶桑一隅者ㅣ 三禩于茲矣라. 顧名思義則似不過乎敦睦之誼也나 然이나 留學之本志와 會合之目的이 豈止此哉아. 曾事討論學識ᄒᆞ고 久擬刊行會報而報 則事稍巨而力不給矣라.[11] (강조 ,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11) 「發刊序」, 『낙동친목회학보』 제1호, 1907. 10.

ㄴ. 惟我太極學會가 呱呱의 聲을 發ᄒᆞ고 東都一隅에 萌出홈이 於玆에 逾年이라. 此間에 幾多頓挫辛苦의 悲境이 不少ᄒᆞ여스나 盤根을 不遇ᄒᆞ면 利刀를 難辨이라. 倚我 會員의 血誠所湧이여. 一致團心으로 相勸相救ᄒᆞ며 相導相携ᄒᆞ야 一步를 退縮ᄒᆞ면 數步를 更進ᄒᆞ고 難關을 遭遇ᄒᆞ면 百折不屈의 精神으로 勇氣를 倍進ᄒᆞ니 此ᄂᆞᆫ 本會가 今日 漸次 旺盛ᄒᆞᄂᆞᆫ 域에 進홈이요[12] (강조,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ㄱ은 『낙동친목회학보』(1907) 창간호의 「발간서(發刊序)」의 일부로, 한문의 통사구조를 유지한 1유형의 문체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국한혼용문 유형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확연히 구분된다. 국한혼용문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류)은 기존의 연구에서 한문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단 '구결식 국한문체' 혹은 '현토식 국한문체'와는 다르다. 한문 문장의 작법이 글쓰기의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국어 문법이 간섭한 결과가 반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문의 어순을 국문의 어순으로 바꾼 부분, 한문의 접속사를 국어 조사로 바꾼 부분, 한문의 허사 대신 국어의 어미를 사용하는 부분, 시의성(時宜性)을 가진 어휘를 포함한 점 등이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류)과 구결문을 차별화시키는 요소로 들 수 있다.

ㄱ의 『낙동친목회학보』보다 1년 먼저 씌어진 ㄴ의 『태극학보』(1906) 「발간의 서(發刊의 序)」는 전형적인 3유형에 해당한다.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 국한혼용문은 국어 구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구문적으로는 한문 문법의 간섭이 해소되지만 어휘적으로는 한문 문법의 간섭의 결과가 남아있는 부류이다. 한문 감탄사나 접속사, 종결사는 보이지 않고, '之'를 활용한 한문의 관형 구성도 거의 해소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용언구에서는 한문 문

12) 「太極學報 發刊의 序」, 『태극학보』 제1호, 1916. 8.

법의 간섭 결과가 남아있다. 3유형 국한혼용문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한자의 중첩으로 만들어진 2음절 용언(退縮ᄒᆞ면, 遭遇ᄒᆞ면), ‘2음절 한자 + 2음절 한자 + ᄒᆞ-’형 용언(相勸相救ᄒᆞ며, 相導相携ᄒᆞ야), ‘부사 + 한자 + ᄒᆞ-’형 용언(更進ᄒᆞ고, 倍進ᄒᆞ니), 양태 표현의 한문구 용언(不少ᄒᆞ여스나, 不遇ᄒᆞ면)등 한문 문법의 간섭을 받은 용언구가 활발하게 사용된다.

1유형인 ㄱ과 3유형의 ㄴ에서 각각 밑줄로 강조한 구절은 두 유형의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낸다. ㄱ의 ‘維我洛東親睦會ㅣ 發呱呱之聲於扶桑一隅’는 한문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한문 글쓰기에서 새로운 모임이 결성되거나 매체의 창간을 알리는 내용에서 종종 사용된다. 국한혼용문의 경우 이 표현을 ㄱ처럼 한문의 구문법을 유지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ㄴ의 ‘惟我太極學會가 呱呱의 聲을 發ᄒᆞ고 東都一隅에 萌出홈이’와 같이 국어 구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의 문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형태로 쓸 수도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ㄱ의 한문 관형 구성에서 ‘之’ 대신 ㄴ의 3유형에서는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고(‘呱呱之聲’ → ‘呱呱의 聲을’), 한문 부사 ‘於’ 대신 국어 조사 ‘에’를 활용한다. 주격조사 ‘ㅣ’는 ‘이/가’로 자리 잡는다(‘維我洛東親睦會ㅣ’ → ‘惟我太極學會가’). 한문구 ‘發呱呱之聲’가 ‘呱呱의 聲을 發ᄒᆞ고’로 완전히 해체되어 표현된다. 즉, 1유형에서 3유형으로 옮겨오면서 통사구조와 어순은 국문 문법에 기본을 두고, 체언구는 국어의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문의 간섭을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만한 점은 한문 구절의 해체 현상이 시간에 따른 점진적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근대적 글쓰기의 기원이 순한문의 글에서 시작됐다면, 국한혼용문은 순한문이 해체되어 순국문과 가까워지는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국한혼용문은 한문에 가까운 구결문부터 시작하여 1유형, 2유형, 그리고 3유형에서 4유형으로 발전해 나가며 순한문에 가깝던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해체되어 결

국에는 순국문과 가까워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한혼용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ㄷ. 今에 吾人이 旨를 立ᄒᆞ고 憤을 發ᄒᆞ야 外邦에 遊ᄒᆞ야 學問을 另着ᄒᆞᆷ은 聞見을 淵博ᄒᆞ고 知識을 牖明ᄒᆞ야 國家政治의 基礎와 棟梁을 自期ᄒᆞ고 文明開化의 精神과 骨子를 自任ᄒᆞᄌᆞᄒᆞᆷ이니 原意도 極히 深遠ᄒᆞ고 抑亦 各自 一己上의 擔負ᄒᆞᆫ 職責도 甚히 重大ᄒᆞᆷ이라. 萬一 相導相輔ᄒᆞᄂᆞᆫ 方便을 謀치 아니ᄒᆞ면 麗澤ᄒᆞᄂᆞᆫ 効도 無ᄒᆞ고 勸勉ᄒᆞᄂᆞᆫ 道도 無ᄒᆞ야 利益實際에 妨害가 或有ᄒᆞ면 國家의 敎育ᄒᆞᄂᆞᆫ 道를 負ᄒᆞ고 人民의 期望ᄒᆞᄂᆞᆫ 意를 沮ᄒᆞᆷ이라.[13]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ㄹ. 然則 其親睦之意을 不可不發表而言者ᄂᆞᆫ 心之聲也오 文者는 言之記也라 各記其言而發其意하야 以供智識之交換하며 以資情誼之相通則 豈不有相應於千里之外者哉아 此ᄂᆞᆫ 不可無此報也라 是報也ㅣ 其體裁則以理論及學說노 爲主하고 刊期則以一個年二回로 爲定ᄒᆞ노니 會旣成矣오 報已出矣라 因是而愈愛愈和하야 不失設會之本旨則一大團體가 可以擔國家之必興이니 豈不韙哉아 嗚呼라 苟有同胞親睦之思想者ᄂᆞᆫ 此會를 不得不贊成이오 又有國民團體之思想者ᄂᆞᆫ 此報를 不容不閱覽이니 湖海僉君子ᄂᆞᆫ 其庶有諒之也夫ᄂᆡ뎌[14]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ㄷ의 『친목회회보』(1896)의 창간취지서인 「회지(會旨)」는 근대계몽기 잡지의 시초로 손꼽히며, 1896년에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의 간섭을 꽤 덜어낸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의 국한혼용문이다. 앞서 제시한 『낙동친목회학보』(1907)보다도 더욱 해체된 형태의 표기를 보여준다.

13) 「會旨」, 『친목회회보』 제1호, 1896. 2.
14) 「趣旨書」,『보중친목회보』 제1호, 1910. 6.

체언구는 물론 용언구도 ‘謀치 아니ᄒᆞ면’과 같이 양태 표현의 한문구 용언을 탈피하여 국문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었다. 일부 남아있는 한문 수사법의 흔적이나 용언구가 해소된다면 국문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ㄹ은 근대계몽기의 끝자락인 1910년 6월에 발간된 『보중친목회보』(1910) 창간호의 「취지서(趣旨書)」의 뒷부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낙동친목회회보』(1907)의 문체와 같이 체언구와 용언구 모두 한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국한혼용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국문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잡지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상황에 따라 특정 유형의 표기 방식이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2.3. 서사 방식의 다양성

근대계몽기의 국한혼용문 텍스트에는 실제로 각 유형의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단권의 잡지 안에서도 주제나 글의 목적, 필자에 따라 다른 문체나 표기 체계 유형이 나타난다. 심지어 한 편의 텍스트 안에서도 여러 유형의 서사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ㄱ. 且 **學問之趣味**가 始自淺近으로 步步漸進ᄒᆞ여 咀嚼無遺ᄒᆞᆫ 然後에 **津津之味**가 自在其中ᄒᆞ니 **吾人之本意**가 大方諸家의 高評을 欲得ᄒᆞᆷ에 不在ᄒᆞ고 **熱誠學生의 昇遠之資**를 畢近之間에 確定ᄒᆞ여 他日 **國家社會의 萬一幸福**을 增進코져ᄒᆞᆷ에 不外ᄒᆞᆫ지라 故로 於此에 高量時宜ᄒᆞ여 數學 則 **先以筭術之詳細講義**로 **筭學의 思想**을 十分擴張ᄒᆞ고 理學 則 **動植理化鑛物의 體用**을 俱擧ᄒᆞ여 **吾人의 耳目所觸**에 容易解釋者로 逐底說明ᄒᆞ여 數理思想이 初無ᄒᆞᆫ **學生諸氏의 濫觴**을 不妨케ᄒᆞ여 …(중략)… **購讀諸氏의 愛顧**ᄒᆞᆷ이 **吾人의 本志**를 不歸烏有케ᄒᆞ면

幸甚[15]

ㄱ의 『수리학잡지』(1905) 창간호의 「창간취지서(發刊趣旨書)」는 관형 구성 체언구의 혼란 양상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 글에서는 때에 따라 한문의 관형 구성인 '之'를 사용하기도 하고 국문 조사 '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앞 문장에서 2음절 체언으로 연결된 '吾人之本意'가 동일한 음절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음 문장에서는 '吾人의 本志'로 나타났다. 굳이 쓰임의 차이를 구분해보자면 한문 조사 '之'는 주어로 쓰인 체언구에, 국어 조사 '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구성하는 체언구에 주로 쓰였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의 규칙으로 확정짓기 어려울 정도로 불규칙하게 사용됐다.

ㄴ. 竊觀 我邦之新聞雜誌刊行于世者ㅣ 不一其類而至若有大關係 於國家與社會之重要者ᄂᆞᆫ 則未有如本雜誌焉ᄒᆞ니 何謂重要오 人之所憑依以生也ㅣ니 何謂所憑依以生고 無是면 無以爲生也ㅣ라. 且夫國家與社會上萬般事爲가 必有原因然後에 始生結果ᄒᆞᄂᆞ니 無原因而結果ㅣ 生者ᄂᆞᆫ 變則也오 有原因而結果ㅣ 不生者도 亦變則也ㅣ라. …(중략)… 噫라. 我大韓이 開國이 五百有十六年이오 通商이 三十有餘年이로ᄃᆡ 人文이 不闢ᄒᆞ고 形勢ᄅᆞᆯ 未解ᄒᆞ야 國家興運과 世界大勢ᄅᆞᆯ 不爲預先硏究ᄒᆞ고 徒望自然成立ᄒᆞ야 以是而萎靡不振ᄒᆞ야 至於今日ᄒᆞ니 良可慨痛也ㅣ로다.[16]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ㄷ. 凡物이 孤ᄒᆞ면 危ᄒᆞ고 羣ᄒᆞ면 强ᄒᆞ며 合ᄒᆞ면 成ᄒᆞ고 離ᄒᆞ면 敗ᄒᆞᆷ은 固然之理라. 矧今 世界에 生存競爭은 天演이오. 優勝劣敗ᄂᆞᆫ 公例라 謂ᄒᆞᄂᆞᆫ 故로 社會의 團體成否로써 文野를 別ᄒᆞ며 存亡을 判ᄒᆞᄂᆞ니 今日 吾人이 如此히 劇

15) 「發刊趣旨書」, 『수리학잡지』 제1호, 1905. 12.
16) 「法政學界趣旨書」, 『법정학계』 제1호, 1907. 5. 5.

烈ᄒᆞᆫ 風潮를 撞着ᄒᆞ야 …(중략)… 今玆學會의 成立이 亦 豈偶然哉아 卽是全國進步之起點이니 此로 由ᄒᆞ야 邦人耳目이 聳其觀聽ᄒᆞ야 互相 感發心과 爭勝意로 明日 三南에 學會가 起ᄒᆞ며[17] (띄어쓰기 - 필자)

ㄴ은 보성전문학교에서 발간된 교우회지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종합지인 『법정학계』(1907) 창간호의 「취지서(趣旨書)」이다. 취지서의 앞부분은 구결문 혹은 1유형에 가까워 한문 구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전반부와는 달리 한문구가 체언과 용언으로 일부 분리되어 한문 문법의 간섭에서 다소 벗어나게 된다. ㄷ의 『서우(서우학회월보)』(1906)의 「본회취지서(本會趣旨書)」는 전반부는 2음절의 체언과 단음절, 2음절 혹은 4음절 용언의 빈번한 사용으로 전형적인 3유형의 국한혼용문을 보여준다. 그러나 글의 뒷부분에서는 국문 관형격 조사 '의' 대신 다시 '之'가 등장하여 한문의 관형 구성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ㄹ. 且 子弟敎育을 到底發達코ᄌᆞᄒᆞ면 先히 其 父兄의 熱心을 激起ᄒᆞ야 飢者의 食과 渴者의 飮과 如히 **得此則活ᄒᆞ고 不得此則死ᄒᆞᆯ쥴로** 認知케ᄒᆞᆫ 然後에 子弟敎育을 爲ᄒᆞ야 不憚勞不吝財ᄒᆞ고 竭力做去ᄒᆞᆯ지니[18]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ㅁ. 다만 人工을 不加ᄒᆞ야 隣邦의 精微홈에 不及ᄒᆞᆫ 所致로다. 民이 富ᄒᆞ여야 國이 富ᄒᆞ나니 今에 我韓이 **富乎아 貧乎아** 工業이 無ᄒᆞ고도 그 엇지 民이 富ᄒᆞᆯ가[19]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17) 「本會趣旨書」, 『서우』 제1호, 1906. 12.
18) 「本會趣旨書」, 『서우』 제1호, 1906. 12.
19) 「工業硏究會趣旨書」, 『공업계』 제1호, 1909. 2.

ㄹ의 『서우』(1906)의 「본회취지서(本會趣旨書)」와 ㅁ의 『공업계』(1909) 「취지서(趣旨書)」는 전반적으로 3유형 혹은 그 이상으로 한문의 간섭에서 벗어나 국문의 문법구조에 가까운 표기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문장에서는 한문 문장이 그대로 쓰이거나 한문의 어조사를 이용한 수사법이 남아있는 구절이 간혹 엿보인다. 이는 국한혼용문 표기 유형의 혼재로 파악할 수도 있고, 국문과 한문의 표기나 문법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글의 수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글의 분위기에 맞춰서 때로는 한문 구절을 분리하여 단어의 형태로 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문구절을 그대로 써서 글의 흐름을 조절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근대계몽기 국한문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양상이었다.[20] 그러나 국한문 혼용문 표기 방식의 유형화에 있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3.2.4. 현대 국어 어휘 형성의 측면

근대계몽기의 국어는 일반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의 국어를 일컫는 근대국어와 지금 현재의 현대국어를 잇는 통로이자 과도기이다. 곧 근대계몽기의 국어는 현대 국어의 태동기이며, 현대 국어의 어휘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과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의 국한혼용문을 살펴보면 현대 국어 어휘의 형성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

20) 임상석(2008: 158)

3유형과 4유형은 국어 구문법을 기본으로 하며 용언구에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남아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보통 텍스트에 한글 표기 실사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와 양태 표현의 한문구 용언의 존재 여부로 3유형과 4유형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한자의 중첩으로 만들어진 '2음절 한자 + ᄒᆞ-' 용언과 '단음절 한자 + ᄒᆞ-' 용언, '부사 + 한자 + ᄒᆞ-' 용언, '술목 구성 한문구 + ᄒᆞ-' 용언이 텍스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공통 특성을 가진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드러나는 단음절 용언과 2음절 용언은 현대 국어 어휘의 형성을 논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ㄱ. **同志**를 **糾合**ᄒᆞ야 **團体**를 **組織**ᄒᆞ고 互相間 其 **知識**을 **增長**ᄒᆞ며 **更進**ᄒᆞ야 其 **所得**ᄒᆞᆫ **結果**를 **團体**로 由ᄒᆞ야 廣汎히 **社會**에 **紹介**ᄒᆞᆷ이 一層 **必要**ᄒᆞᄂᆞ니 卽 **學問**의 **風潮**를 **振揚**ᄒᆞ고 **社會**의 **精神**을 **鼓發**ᄒᆞᆷ에 **團体的 行動**이 **個人的 經營**에 比ᄒᆞ야 十分 **優勝**ᄒᆞᆫ 所以라 彼 **文明 列邦**에 在ᄒᆞ야 **每一 科學**에 **每一 團体**를 有ᄒᆞᆷ이 **通例**를 幾成ᄒᆞᆷ은 엇지 其 **原因**이 無ᄒᆞ리오.[21] (강조 및 띄어쓰기, 구두점 - 필자)

ㄱ은 1908년에 창간된 『법학협회잡지』의 「본회취지서(本會趣旨書)」이다. 텍스트의 상당부분이 2음절 한자 용언과 체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굵게 강조한 어휘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취지서에서 사용된 '규합(糾合), 조직(組織), 소득(所得), 결과(結果), 소개(紹介), 필요(必要), 풍조(風潮), 우승(優勝)' 등의 어휘는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로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21) 「本會趣旨書」, 『법학협회잡지』 제1호, 1908. 11

ㄴ. 今에 吾人이 旨를 立ᄒᆞ고 憤을 發ᄒᆞ야 外邦에 遊ᄒᆞ야[22]

ㄷ. 社會의 團體成否로써 文野를 別ᄒᆞ며 存亡을 判ᄒᆞᄂᆞ니[23]

ㄹ. 會集ᄒᆞ엿던 踪跡을 誰가 追하야 憶ᄒᆞ리요.[24]

ㅁ. 色을 染ᄒᆞ며 金을 鍊ᄒᆞ며 陶器를 造ᄒᆞ며 家屋을 築ᄒᆞ나니[25]

(강조 및 띄어쓰기 - 필자)

ㄴ은 4유형인 『친목회회보』 창간호의 취지문, ㄷ은 3유형인 『서우』의 취지서, ㄹ의 예문 역시 3유형인 『공수학보』의 「서언(緖言)」, ㅁ은 3유형인 『공업계』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국한혼용문 유형의 특성상 단음절 체언과 단음절 용언이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본래 단음절 용언은 한문 문장을 국어의 구문법에 맞춰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ㄴ의 문장에서 단음절 체언과 단음절 용언으로 구성된 '旨를 立ᄒᆞ고'의 구문은 현대국어의 어휘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2음절의 체언 '입지(立旨)'로 정착했다. ㄷ과 같은 단음절 용언은 현대국어에 들어 고유어로 바뀌기도 하고, 안정적인 2음절의 형태로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ㄴ의 단음절 용언 '遊ᄒᆞ야'는 현대 국어의 명사 '유학(遊學)'으로 정착됐고, ㄷ의 '別ᄒᆞ며'는 '구별(區別)'로, '判ᄒᆞᄂᆞ니'는 '판단(判斷)'으로 정리됐다. ㄹ의 '追하야 憶ᄒᆞ리요.'의 구절은 현대국어에 이르러 2음절 어휘인 '추억(追憶)'으로 정착됐다. ㅁ의 '色을 染ᄒᆞ며 金을 鍊ᄒᆞ며'는 각각 '염색(染色), 연금(鍊金)'의 2음절 단어가 되었다.

이와 같이 3유형과 4유형의 국한혼용문에는 한문구가 해체되어 한문의 간섭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1음절 한자 체언과 용언, 2음절 용언이 생겨

22) 「會旨」, 『친목회회보』 제1호, 1896. 2.
23) 박은식(朴殷植), 「本會趣旨書」, 『서우』 제1호, 1906. 12.
24) 「緖言」, 『공수학보』 제1호, 1907. 1.
25) 「謹告」, 『공업계』 제1호, 1909. 2.

난다. 이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그대로 국어 단어로 흡수되거나, 현대국어에서 선호하는 2음절 한자 단어로 바뀌어 정착하게 된다. 이처럼 국한혼용문의 세부 유형화는 한문에서 국문으로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의 과정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3.3. 순국문 계열

순국문으로 된 창간취지서는 『신학월보』(1900), 『자신보』(1907), 『녀ᄌᆞ지남』(1908), 『교육월보』(1908), 『자선부인회잡지』(1908), 『대도』(1908) 등 6종의 잡지가 있다. 이 잡지들은 학령기의 학생,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층과 부녀자층, 해외 거주 교민을 위해 창간되었다. 새로운 학문과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계몽과 교육의 필요성은 신문과 잡지의 창간 이래로 항상 중요시되어왔다. 그러나 근대계몽기 후반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식산흥업(殖産興業)의 명제가 강조되고, 오히려 지식층인 양반과 유림계층에 대한 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1906년 이후 많은 신문과 잡지가 간행되었지만, 하층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여 순국문으로 발간된 것은 별로 없었다. 주류였던 국한혼용문 잡지에 비해 순국문 잡지는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문의 가독이 불가한 계층과 부녀자를 대상 독자로 삼은 잡지는 순국문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문체에 비해 순국문의 경우 독자의 문식성에 따른 표기 선택의 제약이 가장 강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룰 잡지 중 『신학월보』(1900)는 기독교 포교 목적을 띤 선교 잡지이며, 『자신보』(1907)와 『대도』(1908)는 해외 교민을 위한 잡지이다. 『녀ᄌᆞ지남』(1908)과 『자선부인회잡지』(1908)는 최초 여성지인『가뎡잡지』의 명맥을 잇는 여성 계층 대상의 전문지이다. 『교육월보』(1908)는 그 무렵의 많은 교육 잡지들이 국한문체임에도 유독 순국문체로 씌어졌다.

> ㄱ. 우리나라교육에 뎨일 큰 폐단 되ᄂᆞᆫ 것은 첫ᄌᆡ 한문만 슝샹ᄒᆞ고 국문을 우습게 아ᄂᆞᆫ 일이로다 그근인을말ᄒᆞ자면 이후에도 말ᄒᆞ려니와 한문이라ᄒᆞᄂᆞᆫ 것은 곳 쳥국 국문이라 우리나라 말과 그글의 ᄯᅳᆺ이 달나셔 ᄇᆡ호기가 어렵고

ᄯᅩᄒᆞᆫ ᄀᆞᆯᄌᆞ 수효가 만ᄒᆞ셔 평싱을 ᄇᆡ화도 다 ᄇᆡ호지 못ᄒᆞᄂᆞᆫ 바인즉 …(중략)… 무릇 학문이란 것은 이샹ᄒᆞᆫ 것이 아니라 셰계형편 붓허 ᄉᆞ농공샹의 당연히 ᄒᆞᆯ 도리를 아ᄂᆞᆫ것이 학문이니 한문으로만 ᄀᆞᄅᆞ쳐야 알고 국문으로 ᄀᆞᄅᆞ치면 모르ᄂᆞᆫ 것이 아닌즉 슌연ᄒᆞᆫ 우리나라 글ᄌᆞ로도 법률 졍치 교육 식산 물리 화학 력ᄉᆞ 디지 산슐등 각죵 학문을 못 ᄀᆞᄅᆞᄎᆞᆯ 바ㅣ 업스며 못ᄇᆡ홀바ㅣ 업고 ᄇᆡ호면 그ᄃᆡ로 시힝치 못ᄒᆞᆯ 바ㅣ 업슨즉[26]

ㄴ. 현금 우리동포의 미ᄀᆡᄒᆞ심을 탄복ᄒᆞ와 유지ᄒᆞ신 손창희씨씌셔 몽ᄆᆡᆫᄒᆞᆫ 이목을 열기 위ᄒᆞ야 신셰계상 젼진하난 신학문을 번역ᄒᆞ야 잡지를 발간할ᄊᆞᆺ으로 고본금을 모집ᄒᆞᄆᆡ 十三인이 응죵ᄒᆞᄂᆞᆫ고로 ᄒᆞᆫ잡지를 ᄀᆡ간ᄒᆞ고 자신보라 일홈ᄒᆞ야 일반동포로ᄒᆞ여곰 자신케ᄒᆞ오니 유지ᄒᆞ신 쳠군쟈ᄂᆞᆫ 구람ᄒᆞ심을 복망ᄒᆞ옵[27]

ㄱ은 『교육월보』 창간호의 「교육월보취지셔」로 취지서에서부터 이 잡지를 순국문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한문교육의 폐단과 국문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여 잡지를 순국문으로 발행한 뜻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 『교육월보』는 다른 국문 잡지에 비해 띄어쓰기를 철저히 지켰으나 쉼표와 마침표 없이 문장의 호흡이 긴 편이다. 잡지의 내용면에서도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취지에서 밝힌 '나무ᄒᆞᄂᆞᆫ ᄋᆞ히와 무식ᄒᆞᆫ 부인'이라도 쉬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ㄱ의 『교육월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간된 ㄴ의 『자신보』는 1907년에 창간된 하와이 거주 한인단체의 기관지이다. 「취지셔」는 같은 순한글 표기임에도 한문으로 된 단어가 많이 보인다. '현금', '유지', '고본금', '구람', '복망' 등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2음절 한자어를 풀어

26)「교육월보취지셔」, 『교육월보』 제1호, 1908. 6.
27)「취지셔」, 『자신보』 제1호, 1907. 10.

쓰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ㄱ의 교육월보는 비교적 읽기 쉽고 알기 쉽도록 풀어쓴 문체를 구사하여, 독자를 한층 더 배려한 문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창간취지서의 글쓰기와 취지, 독자의 관계

근대적인 매체의 출현은 근대계몽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매체들은 매일 또는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잡지에 실린 글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결국 그것을 수용하고 유포하는 독자에 달려있는데, 본래 '독자'라는 개념은 고전수사학에서 청중을 의미했다. 고전수사학에서 연설자는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청중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했다. 그것에 따라 연설의 성패가 좌우되었기 때문에 연설자에게 청중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근대에 들어 지식 전달의 공간이 연설장에서 텍스트로 옮겨오면서 '청중'은 '독자'로 변모하게 되는데, 독자의 개념도 원래의 '청중'과는 많이 변화하게 된다.[28] 이 변화는 단순히 '말하기'의 영역에서 '쓰기'의 영역으로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청중은 집단이지만 독자는 개인이고, 청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독자의 반응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독자의 존재를 예상하여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 예상독자의 취향과 지식수준은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문체와 어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잡지는 각기 다른 지식인층이 각각 다른 독자층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단순히 통시적인 흐름에 따라 고찰하기보다는 발행 취지와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일정 유형으로 가름하여 살펴보는 것이 취지와 독자층, 서사 방식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유리하다. 본 장에서는 잡지의 창간취지서를 서사 방식, 어휘적 특성, 취지, 대상 독자층 측면에서 세밀한 분석을

28) 정희모(2008: 396, 397)

통해 근대계몽기 글쓰기의 내면을 세밀히 고찰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잡지의 취지와 독자층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학생회지와 교지’, ‘기관지와 학회지’, ‘전문지와 종합지’, ‘교육지와 계몽지’의 넷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1. 재일 유학생회지와 교지

4.1.1. 재일 유학생회지

근대계몽기를 잡지 발간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190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1906년을 기점으로 잡지 발간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1906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잡지 발간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유독 재일 유학생회에서는 이 시기에도 꾸준히 잡지 발간을 이어왔다. 우리나라 잡지의 효시로 꼽히는 『친목회회보』(1896) 역시 재일 유학생 친목 모임에서 창간되었다. 유학생회지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모임을 위해 발간된 것이지만, 본국의 독자들에도 영향을 미쳐 본국에서 발행된 부수가 당시 주요 신문 언론매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에 이들의 언론은 큰 의미를 가진다.[29]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들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체를 조직했다. 한국 최초의 재일 유학생단체는 ‘대한 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로, 1895년 4월 정부가 파견한 113명의 유학생을 기반으로 결성됐다. 여기서 창간한 『친목회회보』는 회원 대

29) 임상석(2008: 63)

상 잡지로서, 우리 최초의 잡지로 꼽힌다. 근대계몽기의 초기에 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구문법을 기반으로 한 4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에 가까운 문체를 보여준다.

ㄱ. 本會會報 發行의 目的은 吾人이 他邦에 留學ᄒᆞ되 遠近에 僑住ᄒᆞ야 容音이 落落ᄒᆞᆫ지라. 此를 以ᄒᆞ야 彼我의 事情을 通ᄒᆞ야 親睦을 惇厚히ᄒᆞ고 兼ᄒᆞ야 智識을 交換ᄒᆞᆷ을 爲ᄒᆞᆷ이라.[30]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ㄴ. 萬一 相導相輔ᄒᆞᄂᆞᆫ 方便을 謀치 아니ᄒᆞ면 麗澤ᄒᆞᄂᆞᆫ 効도 無ᄒᆞ고 勸勉ᄒᆞᄂᆞᆫ 道도 無ᄒᆞ야 利益實際에 妨害가 或有ᄒᆞ면 國家의 敎育ᄒᆞᄂᆞᆫ 道를 負ᄒᆞ고 人民의 期望ᄒᆞᄂᆞᆫ 意를 沮ᄒᆞᆷ이라. 此를 恐ᄒᆞ야 是에 親睦會를 創立ᄒᆞ야 日後大成ᄒᆞᆯ 根本坏璞을 建ᄒᆞ노니 諸員은 十分注意ᄒᆞ야 各自勉勵ᄒᆞ고 互相輔導ᄒᆞ야 鞏固ᄒᆞᆫ 基와 廣大ᄒᆞᆫ 業을 立ᄒᆞ야 堂堂ᄒᆞᆫ 我大朝鮮國民의 本領을 培達ᄒᆞ고 文化의 實力을 養成ᄒᆞ자 齊心相期ᄒᆞ야 鞠躬盡瘁ᄒᆞ기를 表ᄒᆞᆷ이라.[31]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친목회회보』의 취지문은 국어 구문법을 기본으로 한 4유형 국한혼용문의 서사 방식에 해당한다. 체언구에서는 한문 문법의 간섭을 벗어났지만 용언구에서는 2음절 용언, ‘2음절 + 2음절’ 용언, ‘단음절 한자 + ᄒᆞ-’ 용언 등의 형태로 한문 구문법의 간섭 결과가 남아있다. ‘不X ᄒᆞ-’와 같은 양태 표현의 한문구 용언이 쓰이지 않고 고유어가 사용된 점은 4유형 국한혼용문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ㄴ의 ‘謀치 아니ᄒᆞ면’ 구절은 만약 3유형 국한혼용문이었다면 ‘不謀ᄒᆞ면’의 한문구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30) 『친목회회보』 제1호, 2쪽. 1896. 2.
31) 「會旨」, 『친목회회보』 제1호, 3쪽. 1896. 2.

한영균(2013)에서 이름한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의 국한혼용문은 주로 1894년부터 1899년 사이에 학부가 주관하여 간행한 일련의 교과용 도서, 공문서, 법규류에 사용된 유형이다. 『친목회회보』가 창간된 시기가 1896년임을 미루어볼 때, 이 취지문은 당시 많이 발간됐던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과 같은 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행 취지의 측면에서는 『친목회회보』는 유학생 간의 친목을 돈후하게 하고 지식을 교환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생 신분으로써 책임감을 상기하여 상호간에 서로 인도하고 도와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두는데, 이러한 발행 목적은 1890년대뿐만 아니라 이후 1910년대 유학생 잡지까지 이어진다.[32]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도 '국가(國家), 정치(政治), 문명(文明), 교육(教育), 인민(人民), 문화(文化), 양성(養成)' 등의 신어(新語)가 반복 등장하여 발간 취지를 분명히 했다.

최초의 유학생회지인 『친목회회보』의 창간 이후로 몇몇 관비유학생 단체가 활동하다가, 1905년 재일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다. 1905년에서 1907년 사이에 무려 10여개의 유학생 단체가 설립되는데, 이 때 생겨난 단체들은 주로 유학생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조직된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는 관서지방 출신 유학생을 구심점으로 구성되었다.

> 一致團心으로 相勸相救ᄒᆞ며 相導相携ᄒᆞ야 一步를 退縮ᄒᆞ면 數步를 更進ᄒᆞ고 難關을 遭遇ᄒᆞ면 百折不屈의 精神으로 勇氣를 倍進ᄒᆞ니 此ᄂᆞᆫ 本會가 今日 漸次 旺盛ᄒᆞᄂᆞᆫ 域에 進홈이요. 時時 演說 講演 或 討論 等으로써 學識을 交換硏磨ᄒᆞ야 他日 雄飛의 準備를 不怠ᄒᆞ고 學暇를 利用ᄒᆞ야ᄂᆞᆫ 各自 學習ᄒᆞᄂᆞᆫ 바 專門普通으로 論作之 飜譯之ᄒᆞ야 我同胞國民의 智識을 開發ᄒᆞᄂᆞᆫ 一分의 助力이

32) 김영민(2010: 41)

되고져ᄒᆞᄂᆞᆫ 微誠에 出홈이니 此ᄂᆞᆫ 本報가 創刊되ᄂᆞᆫ 盛運에 達ᄒᆞᆫ 者인ㅣ져.[33] (강조,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태극학회는 당시 가장 유력한 유학생 단체로 손꼽혔고, 회지의 집필진도 다수인데다 기사의 양도 방대했다. 『태극학보』는 1906년 8월에 창간되어 1908년 11월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정기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발행되었다. 취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친목회회보』와 마찬가지로 학식 교환과 친목 도모의 목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친목에서 나아가 연설과 강연 혹은 토론 등의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 학식을 교환하고 연마하는데 집중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익힌 지식이 '我 同胞國民의 智識을 開發ᄒᆞᄂᆞᆫ 一分의 助力'이 되기를 열망한다는 점에서 집단 내부의 친목과 학식교환 이상의 의의를 두었다.

『태극학보』의 취지서는 전형적인 3유형 (『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의 국한혼용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지서를 구성하고 있는 용언구는 대부분 '2음절 한자 + 2음절 한자 + ᄒᆞ-' 용언과 '단음절 한자 + ᄒᆞ' 용언인데, 이로 미루어보아 어휘적으로는 한문 문법의 간섭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不少ᄒᆞ여스나, 不遇ᄒᆞ면, 不怠ᄒᆞ고' 등의 양태 표현 한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4유형이 아닌 전형적인 3유형의 국한혼용문임을 알 수 있다. 체언구는 한문의 관형격조사 '之'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문 조사 '의'가 적극 사용되어 한문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어휘면에서는 '연설(演說), 강연(講演), 토론(討論)' 등의 교육 활동 관련 신어(新語)가 있으며, '개발(開發), 성운(盛運), 천직(天職)' 등 현대 국어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신어휘가 사용됐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학가(學暇)'라는 단어는 '배우는 틈틈이 자기 학습을 해야한다'는 의미의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로, 지금은 사라진 한자어이다. 또한 '반닷시(반드시)',

33) 「太極學報 發刊의 序」, 『태극학보』 제1호, 1906. 8.

‘엇지(어찌)’, ‘또흔(또한)’ 등 일부 부사를 한글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띄는데, 『태극학보』에 이어 이듬해에 발행된 『공수학보』(1907)는 부사의 한글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 曩日에 共修會를 組織ᄒᆞ야 每月에 幾回식 會ᄒᆞ야 學友의 誼를 相敦ᄒᆞ고 麗澤의 益을 相資ᄒᆞ기를 準備ᄒᆞ야 講述 討論으로 彼此의 智識을 交換ᄒᆞ니 當席의 愉快ᄒᆞᆷ과 一時의 感應ᄒᆞᆷ은 恳欵ᄒᆞᆫ 容儀와 親愛ᄒᆞᆫ 情緖가 靄靄瀜瀜ᄒᆞ야 春風의 和氣을 頃刻에 挽回ᄒᆞᆷ과 同ᄒᆞ나 時가 移ᄒᆞ고 人이 往ᄒᆞᆫ 後에 團圓ᄒᆞᆫ 氣象은 變ᄒᆞ야 寂寞ᄒᆞᆫ 境에 濱ᄒᆞ고 嘉言樂事와 理論學說은 更히 影響을 摸捉ᄒᆞ야 聽得키 難ᄒᆞ니 然ᄒᆞᆫ즉 …(중략)… 此에 因ᄒᆞ야 方便의 策을 硏究ᄒᆞᆷ이니 맛당히 吾儕가 各各筆硯의 勞를 執ᄒᆞ야 學問的思想과 討論的陳述을 一切히 記叙ᄒᆞ야 文章을 蒐輯ᄒᆞ고 棗梨을 剞劂ᄒᆞ야 互相히 靜窓裵几에 揷置ᄒᆞ엿다가 晴閑ᄒᆞᆫ 餘와 覃思ᄒᆞᄂᆞᆫ 際에 點檢抽出ᄒᆞ야 一度看過ᄒᆞ면 前日의 衆論과 諸般의 新學을 折衷도 ᄒᆞ며 領會도 ᄒᆞ리니 …(중략)… 古語에 云ᄒᆞ엿스되 文으로써 友을 會ᄒᆞ고 友로써 仁을 輔ᄒᆞᆫ다ᄒᆞ니 吾儕도 此言을 銘心服膺ᄒᆞ야 仁義로 德性을 涵養ᄒᆞ고 文事로 友道를 輔導ᄒᆞ야 個人의 事爲와 社會의 公益을 並修兼進ᄒᆞ기를 玆에 期望ᄒᆞᄂᆞᆫ 빈로다.[34]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공수학보』 의 「서언(緖言)」에 따르면 공수회를 조직한 유학생들은 매달 몇 번씩 모여 학우의 정분을 두텁게 하고 강술과 토론으로 서로의 지식을 교환해왔다. 그러나 강술과 토론에서 유익했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였으며, 그런 취지에서 회원들이 연구한 학문과 토론을 편집하여 학보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34) 「緖言」, 『공수학보』 제1호, 1907. 1.

『공수학보』의 취지서 역시 앞선 유학생회지와 유사한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류)으로 되어있으나, 『태극학보』의 창간취지서에 비해 더 많은 국어 부사를 찾아볼 수 있다. ‘엇지(어찌), ᄒᆞ여금(하여금), 맛당히(마땅히), 또(또)’ 등의 부사와 함께 한글 접사 ‘-식 (씩)’(幾回식)이 사용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不X ᄒᆞ-’의 양태 표현 한문구 용언도 일부분 해체되어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류) 국한혼용문의 모습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3유형의 국한혼용문이라면 ‘不免ᄒᆞ’과 ‘不宣布ᄒᆞ’로 표기되었을 양태 표현 한문구를 ‘免치 못하나’, ‘宣布치 못ᄒᆞ면’으로 풀어서 표현하였다.

어휘 측면에서는 학문과 토론 연구가 활발한 유학생 집단의 성격상 ‘개념(槪念), 문법(文法), 사상(思想), 이론(理論), 저작(著作), 진술(陳述), 토론(討論), 학설(學說), 학술(學術)’ 등의 학술 관련 신어(新語)가 많이 사용됐다. ‘悬欵(간관)ᄒᆞᆫ, 摸捉(모착)ᄒᆞ야, 明敎(명교)ᄒᆞᄋᆞᆸ셔, 遠居(원거)ᄒᆞ시ᄂᆞᆫ’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가 일부 나타나는데, 이 단어들은 부사와 용언이 한 글자씩 결합되어 생성된 2음절 단어라는 공통 특성을 갖는다. 이는 당시의 국한혼용문 용언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언(緖言)」의 인용문 중 밑줄로 강조한 부분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이문회우 이우보인(以文會友 以友輔仁)’의 구절을 ‘文으로써 友을 會ᄒᆞ고 友로써 仁을 輔ᄒᆞᆫ다’와 같이 모두 1음절 한자어와 국어 조사의 조합으로 풀어서 서술한 부분이다. 1유형이나 2유형의 국한혼용문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굳이 원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공수학보』 취지서는 한문 원문의 인용 마저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한문 부사와 어순으로부터 벗어나 국문 문법을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1905년 이후 태극학회와 공수학회를 비롯하여 경상도의 낙동친목회, 경기도의 한금청년회, 전라도의 호남학회 등과 대한유학생구락부와 대한공수회 등

많은 유학생 단체가 생겨났다. 이에 유학생들 사이에서 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유학생회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06년 9월 대한유학생구락부와 한금청년회가 통합하여 대한유학생회가 조직되어 1907년 3월 『대한유학생회학보』를 창간했다. 뒤이어 동인학회는 같은 해 7월에 『동인학보』를 창간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낙동친목회에서 『낙동친목회학보』를 창간했다.

ㄱ. 乃者 光武十年 七月 日에 行閔忠正公追弔會而仍撮影ᄒᆞ고 合大韓留學生俱樂部與靑年會ᄒᆞ야 爲大韓留學生會ᄒᆞ고 以情誼親密과 學識交換으로 爲目的ᄒᆞ니 噫라 斯正矣라.…(중략)… 我六七百人이 聞一則記一하고 學一則演一ᄒᆞ야 以筆爲口ᄒᆞ고 以文爲言ᄒᆞ야 輸入世界之文明ᄒᆞ야 供給國家之實力이 是本會目的之廣義也오. 與二千萬家族社會로 同歸考也니 是本會會報之成立이 成立於閔忠正公一朞追弔之日也라. 嗚呼라 豈偶然也哉아.[35]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ㄴ. 况負笈海外者 必先以此로 爲主觀的目的ᄒᆞ고 其他所學所習者로 以爲擴充之니 擴充之方은 必設一大法團ᄒᆞ야 以其群精所湊와 衆智所集으로 互相交換然後에 乃可以完全이니 此ᄂᆞᆫ 同寅會之所由設也라.[36]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ㄷ. 然이나 留學之本志와 會合之目的이 豈止此哉아. 曾事討論學識ᄒᆞ고 久擬刊行會報而報 則事稍巨而力不給矣라. …(중략)… 特用此先爲之紹介於覽者僉彦ᄒᆞ야 俾知洛東會之存乎. 世間則日後에 心當應聲合力ᄒᆞ야 庶可達本會敎育擴張之目的也리니 是爲本學報之特色也夫ᄂᆡ뎌.[37]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35) 「大韓留學生會學報 趣旨書」『대한유학생회학보』 제1호, 1907. 3.
36) 「趣旨書」, 『동인학보』 제1호, 1907. 7.
37) 「發刊序」, 『낙동친목회학보』 제1호, 1907. 10.

위의 유학생회 발간 잡지들은 모두 1907년에 창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ㄱ의 대한유학생회에서 발간한 『대한유학생회학보』(1907.3)는 1906년 7월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1주기 추도회에 참석한 유학생들이 발의하여 창간되었다. 「취지서(趣旨書)」에서는 정의(情誼), 친밀과 학식 교환을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기억하고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연출하는' 지식인으로써 학보발간으로 국가에 실력을 공급하는 것이 넓은 뜻임을 밝히고 있다. 뒤이어 창간된 ㄴ의 『동인학보』(1907.7)는 「취지서(趣旨書)」를 통해 국가가 성하고 쇠하는 관계는 국민의 정신 결합과 의무 이행에 달려있으며, 해외에 유학하는 이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목표를 확충하도록 도와야 함을 천명한다. 경상도 유학생을 중심으로 결성하여 창간된 ㄷ의 낙동친목회의 『낙동친목회학보』(1907.10)는 앞의 두 잡지보다 교육에 방점을 두었는데, 「발간서(發刊序)」에서 이 모임의 목적은 교육에 있고, 교육을 위한 최대 사업으로 학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1907년에 발간된 이 잡지들은 1907년 이전 혹은 1907년 이후에 창간된 다른 유학생지에 비해 한문의 간섭도가 높은 편이다. 국한혼용문의 유형은 한문 구문법을 바탕으로 한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이 지배적이며 일부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요소도 섞여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한 한문 부사, 감탄사(嗚呼라, 噫라), 접속사(而, 與, 然), 종결사(也, 哉, 歟, 是也, 矣)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아직 국문의 구문법을 회복하지 못한 술목 구조가 많이 남아있다. '聞一則記一하고 學一則演一ᄒᆞ야 以筆爲口ᄒᆞ고 以文爲言ᄒᆞ야'와 같은 한문 수사법적 표현, '豈×此哉아'와 같은 상투적인 한문구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진실로 血이 有ᄒᆞ고 骨이 有ᄒᆞᆫ 者ㅣ 誰가 一掬의 淚를 禁ᄒᆞ리오. 然이ᄂᆞ 吾儕ᄂᆞᆫ 다만 現時勢에 服從키 爲ᄒᆞ야 生ᄒᆞᆫ 者ㅣ 아니오 新時勢를 造成키 爲ᄒᆞ야

生ᄒᆞᆫ 者ㅣ라 善風潮가 有ᄒᆞ면 可以 順行이오 惡風潮가 有ᄒᆞ면 可以 逆流ᄒᆞ야 最后의 目的을 達ᄒᆞᆯ 것이라. 大蓋 國家의 一興一亡이 반다시 其 原因이 有ᄒᆞᄂᆞ니 國步가 艱難ᄒᆞᆫ 時代를 際ᄒᆞ야 經世家가 其 國家의 病源을 不究ᄒᆞ고 한갓 光復을 期圖ᄒᆞ면 是ᄂᆞᆫ 譬컨ᄃᆡ 醫士가 病人의 病根을 不解ᄒᆞ고 施藥ᄒᆞᆷ과 如ᄒᆞ도다 엇지 一毫의 效果를 奏ᄒᆞ리오. …(중략)… 亦是 祖先의게 傳染ᄒᆞᆫ 病的 思想을 脫치 못ᄒᆞ고 曰 甲會 曰 乙會라 ᄒᆞ야 國民的 精神을 沒了ᄒᆞ고 部分的 性質을 胚胎ᄒᆞ니 豈不痛哉며 豈不懼哉아. 於玆에 吾儕가 大聲疾呼ᄒᆞ야 曰 如何ᄒᆞᆫ 好個事業의 名義를 借ᄒᆞ야 經營ᄒᆞ더라도 民族的은 韓國을 興ᄒᆞ고 黨派的은 韓國을 亡ᄒᆞᆯ지니 是ᄂᆞᆫ 卽 我韓時代의 要求오 我韓國民의 自覺心이라 此 自覺心의 實行與否ᄂᆞᆫ 我韓 興亡에 關ᄒᆞᄂᆞᆫ 分水點이라.[38]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이로부터 1년 뒤에 창간된 『대한학회월보』(1908.2)의 「취지서(趣旨書)」는 글의 전반부에서는 다양한 국문 부사를 사용하여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의 국한혼용문을 보여주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국문 부사는 줄고 한문 부사가 늘어나며 일부 한문 감탄사와 상투적인 한문 표현이 다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취지서의 하단에 필자가 '發起人一同'으로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다수의 필진이 취지서의 작성에 관여한 점이 다양한 유형의 서사방식을 보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용언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2음절 용언과 '단음절 한자 + ᄒᆞ-' 용언이 엿보이며 '脫치 못ᄒᆞ고'와 같이 양태 표현의 한문구 용언도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 1907년에 발간된 잡지에 비해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의 국한혼용문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大韓學會趣旨書」, 『대한학회월보』 제1호, 1908. 2.

1909년 1월 대한학회와 태극학회, 대한공수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재일유학생 단체가 하나로 완전히 통합된 대한흥학회가 결성된다. 유학생 단일 조직인 대한흥학회는 1910년 6월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재일유학생들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되었다.

> 大抵 學問이란 者는 時勢를 隨ᄒᆞ야 時務의 學이 有ᄒᆞ거ᄂᆞᆯ 現時에 風潮를 不覺ᄒᆞ고 읏지 時務에 適合ᄒᆞᆫ 學問을 知得ᄒᆞ리요. 是를 由ᄒᆞ야 靑年 吾輩가 奮然히 海外에 飛渡ᄒᆞ야 遊學의 年所가 已有ᄒᆞ나 但 實地의 硏究가 未有ᄒᆞᆷ은 竊自愧歎ᄒᆞᆫ 바이로ᄃᆡ 區區 微衷이 內地同胞로 더부러 文明에 共進코자 ᄒᆞ야 學會를 組織ᄒᆞ고 學報를 發刊ᄒᆞ야 諸位 同胞의 愛讀을 已被ᄒᆞ야스니 幼穉ᄒᆞᆫ 知識과 薄弱ᄒᆞᆫ 事力으로 一分 鼓吹의 效能은 若有著無ᄒᆞ나 學生時代의 身分에 在ᄒᆞ야는 其 聲을 揚ᄒᆞ며 其 力을 罄ᄒᆞᆷ이 不無ᄒᆞ다 ᄒᆞᆯ지라. …(중략)… 或者의 議綸이 本會의 趣旨가 單純히 右와 如ᄒᆞ면 興學 二字의 名義가 過度ᄒᆞᆯ 듯ᄒᆞ다 할지나 此는 全鼎의 味를 知ᄒᆞ난 者의 言이 아니라 若 或 今日時代에 一般同胞의 智德을 啓發치 못ᄒᆞ면 維新ᄒᆞᆫ 學問을 興旺케 ᄒᆞᆯ 能力이 不及ᄒᆞ리니 本會의 趣旨는 卽 興學의 基因이라. 抑我一般會員이 心力을 合同ᄒᆞ며 聲氣를 連絡ᄒᆞ야 本會의 目的을 期達ᄒᆞ면 祖國의 文明富强ᄒᆞᆷ을 指目可待ᄒᆞ리니 勉旃勉旃ᄒᆞ심을 千萬切盼.[39] (구두점, 띄어쓰기 - 필자)

『대한흥학보』(1909.3)의「취지서(趣旨書)」에는 재일 유학생들이 대한흥학회로 단합된 만큼 국민 역시 한 마음으로 단결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 아울러 취지서에서는 구성원의 정의를 돈독히 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국민의 지덕을 계발하는 데에 창간 목적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흥학보』는 각 호마다 2천 부씩 발행되어 거의 모든 수를 국내에 배포했고, 1909년 10월 발

39) 「趣旨書」, 『대한흥학보』 제1호, 1909. 3.

간된 6호의 기사문 「學報發送에 대한 所感」에 따르면 국내 총 구독자가 1909년 9월말 508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 있는 잡지였다. 따라서 취지서에서 당초 목적으로 삼았던 국민의 지식계발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사 방식 면에서는 『대한학회월보』와 유사한데, 비교적 한문구의 간섭을 줄인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을 택했다. '大抵, 然ᄒᆞ나, 若' 등 문두에 쓰이는 부사는 한문으로 되어있으나, '읏지(어찌)', '더부러(더불어)' 등의 일부 국문 부사와 다양한 국문 조사의 사용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들의 학보 발간은 기본적으로는 유학생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학식교환에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조국문화의 창달과 국내동포의 지식을 깨우쳐 이끌기 위한 지덕 계발에 더욱 뚜렷한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림(1987: 3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일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신지식을 국내에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실력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잡지 발간의 근본 목적이었던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유학생회지는 전부 국한혼용문의 서사 방식을 택했다. 당시의 글에는 번역어인 한자 숙어가 많을수록 그것은 서구적으로 문명개화한 주체라는 사실의 증명이었다. 한자어 없이는 지식인 사이에서 소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유학생들 역시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일본 현지에서 유학하며 신학문의 용어와 문명어를 적극 수용하여 글을 썼다. 유학생들은 이런 이유로 다른 표기방식보다도 국한혼용문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유학생 잡지의 국한혼용문 세부 유형은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을 주류로 하며, 1907년에 창간된 잡지 세 종류만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과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국한혼용문이 사용됐다.

4.1.2. 학교 잡지

근대계몽기에 들어 근대적 교육제도가 수립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에 부응하여 많은 민간학교가 설립되어 교지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교지는 '학교 잡지'의 줄임말로 같은 학교 출신의 교우회, 학생회,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가리킨다. 근대계몽기에 창간된 교지는 『친목(보전친목회보)』(1907), 『보중친목회보』(1910)가 있다. 잡지의 태동기에는 교지의 발간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1930년대에 이르면 교지 발간이 매우 활발해지게 된다.

『친목(보전친목회보)』(1907)는 학생회지의 효시로 꼽히는데, 아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표지의 제목은 '친목(親睦)'이며 속지의 표제는 '보전친목회보(普專親睦會報)'로 표기되어 있다.

> 唯我同牕諸友가 學業을 肄習홈이 將來 國家를 出治大振홀 一團 法律機關이라. …(중략)… 然後 物物成象ᄒᆞ야 各得 其有用材科ᄒᆞᄂᆞ니 於是乎 天工을 人其代之라. 是로 因ᄒᆞ야 始於春而結會ᄒᆞ니 盖 親睦協和之意也오. …(중략)… 以文媒通ᄒᆞ야 情誼交及ᄒᆞ며 智識互換ᄒᆞ야 雖各在千里라도 親如比屋이 有如會報也ㅣ니 會報者ᄂᆞᆫ 法律政治와 敎育의 開進民志ᄒᆞᄂᆞᆫ 各種新事業類別이며 內外國情況 及風俗改良ᄒᆞᄂᆞᆫ 樞要를 包含홈인즉 實不能個人의 智識所及이라 蒐集高明家贊成述投ᄒᆞ야 贊成一編ᄒᆞ니 大旨 則唯我靑年이 春和團結ᄒᆞ야 秋風結實ᄒᆞ기로 親睦ᄒᆞᆫ 後普通學問을 專習硏究ᄒᆞ야 其實力을 養成ᄒᆞ야 我韓傾覆ᄒᆞᆫ 國權을 同力撐擎ᄒᆞ야 屹然 獨立에 共守同盟ᄒᆞ기를 雙肩에 擔負ᄒᆞ고 同聲同應ᄒᆞ기로 一切普及ᄒᆞ노니 唯我靑年同胞여 勿失春機어다[40]

40) 「普專親睦會月報 本報趣旨」, 『친목』, 제1호, 1907. 3.

창간호 맨 앞머리에 실린 「본회 취지(本報 趣旨)」에서는 ‘본 회보는 법률 정치와 교육 분야에서 백성들의 뜻을 개진하는 각종 신사업부터 내외국 정황과 풍속개량의 내용을 수집하여 싣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친목을 이룬 후 보통 학문을 전습하고 연구하여 실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빼앗긴 국권을 함께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발간 취지를 친목회 내부의 지식 교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 방식의 특징은 ‘또흔, 엇지, -가 아니리오, 갓치’ 등 일부 국문 부사가 사용되었으면서, 일부는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의 특징인 2음절 용언 및 ‘2음절 + 2음절 + ᄒᆞ-’ 용언구가 사용되었다. 반면 한문 부사와 접속사, 종결사가 많이 사용된 편이고, 어순에서도 한문 구문법을 유지하고 있는 어구가 문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경우 여러 가지 국한혼용문 유형의 특징이 섞여 있어 한 유형으로 가름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어 구문법을 기반으로 하되 한문 문법의 간섭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국한혼용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는 당시의 화두였던 ‘법률(法律), 정치(政治), 교육(敎育)’ 외에도 ‘사업(事業), 사회(社會), 학문(學問), 국권(國權)’등의 신어(新語)가 사용됐다.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藹生(애생)’, 유사한 의미의 한자로 구성된 ‘撐擎(탱경)’과 같은 사라진 한자어도 보인다.

근대계몽기의 말미인 1910년 6월에 창간된 『보중친목회보』는 1906년 이용익(李容翊)이 설립한 보성학교의 졸업생 교우회지이다. 앞서 살펴본 『친목』이 보통학교 학생 회지였음을 생각해볼 때, 졸업생들로 구성된 『보중친목회보』는 수준이 더욱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잡지 첫 면에 스스로 ‘學生雜誌의 嚆矢’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전의 교우지나 친목지보다는 상당한 학구적 취지를 가지고 창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是以로 世界文明社會가 皆從親睦 而組織團體를 如合絲繫桑ᄒᆞ며 束箭支廈ᄒᆞ야 使其國으로 無敵於天下ᄒᆞ나니 顧我大韓二千萬人民이 果能爲團體乎否아 惟吾校友가 爲示團體之標準 而組成親睦會焉ᄒᆞ고 又要親睦之發展 而刊出會報焉ᄒᆞ니 豈徒然而已哉아 …(중략)… 言者ᄂᆞᆫ 心之聲也오 文者는 言之記也라. 各記其言而 發其意하야 以供智識之交換하며 以資情誼之相通則 豈 不有相應於千里之外者哉아. 此ᄂᆞᆫ 不可無此報也라. 是報也ㅣ 其體裁則以 理論及學說노 爲主하고 刊期則以一個年二回로 爲定ᄒᆞ노니 會旣成矣오 報已出矣라 因是而愈愛愈和하야 不失設會之本旨則一大團體가 可以擔國家之必興이니 豈不韙哉아. 嗚呼라. 苟有同胞親睦之思想者ᄂᆞᆫ 此會를 不得不贊成이오 又有國民團體之思想者ᄂᆞᆫ 此報를 不容不閱覽이니 湖海僉君子ᄂᆞᆫ 其庶有諒之也夫ᄂᆡ뎌[41] (구두점, 띄어쓰기 - 필자)

위에 인용한 「취지서(趣旨書)」에는 '세계 문명사회가 다 친목을 좇아 단체를 조직하는데, 보중친목회가 교우회의 표준을 보이기 위해 조직하였으며 회보를 발행한다.' 고 밝혀 학교의 대단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회보로 인해 한 학교에서 수학한 동지들이 더욱 사랑하고 친목하며, 각기 이론과 학술을 기록하고 지식을 교환하면 우리 한 단체만으로도 가히 국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대의를 표명하고 있다.

앞선 회지들과 마찬가지로 '문명(文明), 사회(社會), 단체(團體), 표준(標準), 졸업(卒業)' 등의 신어가 사용되었으며, 소풍을 의미하는 '원족(遠足)'이라는 단어는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사용되는 단어이다. 국한혼용문의 유형은 지식인의 모습을 담지하듯 한문 구문법을 기반으로 둔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의 서사 방식을 보인다. 보중친목회의 필자와 독자는 학교에서 수학하던 국내 지식인으로써 한문으로 교육받

41)「普中親睦會報 趣旨書」, 『普中親睦會報』, 제1호, 1910. 6.

았고 한문의 사용에 능숙했을 것이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춘 교우를 대상 독자로 두었으므로 독자 집단의 범위가 유학생회지보다 좁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국문에 가까운 문체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내용면에서도 유학생지와는 달리 옛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유명한 이론을 활용하여 논리를 개진하여 단체 결성의 정당성과 단체 내부의 결속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교지는 두 종류뿐이기 때문에 특성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문 구문법에 가까운 문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잡지 창간의 취지 자체를 집단 내부의 친목 도모와 지식 교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사용면에 있어서는 유학생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어조와 서사 방식면에서는 유학생지와는 다른 글쓰기를 보여준다.

4.2. 단체 기관지와 학회지

학회지와 기관지는 단체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되어 교육의 계발과 식산을 진흥시킨다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운동방법은 달랐다.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와 같은 정치기관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시도했으며, 서우학회와 호남학회와 같은 학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 먼저 비교적 취지와 사상이 뚜렷했던 정치 단체의 잡지 창간취지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4.2.1. 정치 단체 기관지

1906년에 창간된 『조양보』(1906)는 조양보사(朝陽報社)에서 발간한 최초의 종합지로 알려져 있다. 다른 잡지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편인데, 본고에서는 『조양보』를 단순한 종합지로 정의하기 보다는 정치 단체가 발간한 기관지의 초기 형태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로 『조양보』의 주요 필진이 장지연(張志淵), 이기(李沂) 등 훗날 대한자강회의 핵심 인물이며, 종합지로 파악하기에는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독립과 자강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논조가 강한 기사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양보』는 이후에 결성될 대한자강회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창간된 잡지로 추정된다.

> 近日 論我韓急務者 莫不以敎育爲 先然 敎育亦有三種. 一曰 家庭敎育 父母言行是也. 二曰 學校敎育 文字政法是也. 三曰 社會敎育 新聞雜誌是也. …(중략)… 不得不 以社會敎育 爲急務中之尤急務 此朝陽報社諸公之 所以 發刊月報以供朝野 士君子秉燭之學而 其言則卽一種敎科書也. 其志則卽獨立恢復計也. 故

謹把苦心之筆 而濡嘔血之墨 徧告于海內同志者[42]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조양보』는 잡지 전반이 국한혼용문의 표기 방식을 택했으나 창간취지서만은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 사회 교육이 시대의 급선무가 된 오늘날에, 본지를 통해 '사군자(士君子)'에게 학문을 제공하여 독립 회복을 꾀꾼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시는 다룰 줄 알면서도 신지식은 모르는 선비들, 즉 한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식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취지서를 순한문으로 썼더라도 그 취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취지서는 순한문으로 되어있지만 본문은 주로 국한혼용문이었고, 기사의 내용에 따라 순국문과 순한문의 표기방식이 때때로 선택되었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 3월 장지연이 주동하여 『조양보』에 참여했던 윤효정, 심의성 등이 함께 조직한 단체이다. 국가의 위기를 절감한 지식인들이 국민의 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 아래 결성되었고, 같은 해 7월 학회지인 『대한자강회월보』를 창간하였다. 일반적으로 잡지의 창간취지서는 한 사람 혹은 공동의 필진이 작성한 한 편의 글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대한자강회월보』의 「월보서(月報序)」는 총 3편으로 되어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총 3편의 서문 중 첫 편은 대한자강회 회장 윤치호(尹致昊)가 쓴 문답체 형식의 국한혼용문이며, 다음 편은 이기(李沂)가 쓴 국한혼용문, 마지막 편은 자강회 고문인 오가키(大垣丈夫)가 쓴 순한문의 글이다.

ㄱ. 日에 有客이 促膝附耳ᄒᆞ고 叩之于余 曰 "自强會之名稱과 及其 趣旨ᄂᆞᆫ 業已公佈大世矣라. 固 不容再問이어니와 必其裏情이 或有ᄒᆞ니 願一聞之ᄒᆞ노

42) 이기(李沂), 「朝陽報發刊序」, 『조양보』 제1호, 1906. 6.

라.“

余ㅣ 曰 “惡라 是何言也오 君之 所謂 裏情은 表面으로 稱云自强이라ᄒᆞ고 其 內容은 浮沈渾敦ᄒᆞ야 阿私作俑을 是云者歟아 抑或外假華名ᄒᆞ고 內挾僞雜ᄒᆞ야 以營營於肥己之私를 是云者歟아 抑或形式上으로 腐敗를 攻擊ᄒᆞ되 實地情衷은 徒藉美名ᄒᆞ고 終無事行之可能結局者를 是云歟아 於 此三者에 有一焉이면 其 已强者도 必衰弱乃已어늘 況如今萎 微懦弱之吾人이 奚暇에 有自强之希望哉아 本會 趣旨 及 名稱은 表裏 均一ᄒᆞ야 無他裏情은 斷然靡間이어늘 今 君之問이 有此訝點ᄒᆞ니 是ᄂᆞᆫ 謂自强之必無其力而恐有有初鮮終之歎歟아 此ㅣ 吾國 所以蒙未開之誚也라 君如未信커던 請訂諸本會之月報ᄒᆞ라 此 卽 本會之機關 精神也니 於是乎에 其可觀乎ᄂᆡ져”

客이 唯唯曰 “果然 乎哉아.”[43]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 필자)

ㄴ. 會之有報ᄂᆞᆫ 何歟오 曰 使會員讀之也니라 其使會員讀之ᄂᆞᆫ 何歟오 曰 欲其求自强之道也니라. 其 不許非會員讀之ᄂᆞᆫ 何歟오 曰 否라 讀之를 自會員始오 非不許非會員也라. 苟求自强之道면 則 普天下仁人君子ㅣ 皆將讀之니 而況爲我韓人者哉리오 …(중략)… 夫然則會報之行이 是豈得已者耶아 吾已勉吾自强ᄒᆞ고 而又復勉公者ᄂᆞᆫ 誠恐志不一而力分 故耳라 吾己自强ᄒᆞ고 公又復自强이면 則是得二人之自强也오 公이 又復勉公之傍人ᄒᆞ고 公之傍人이 又 復勉其傍人이면 則是得四人之自强也니 由此而至於得二千萬口之自强이면 則國家之政治를 可以改善이오 世界之羈絆을 可以出脫이니 然則 諸公之讀會報ㅣ 亦豈得已者耶아 嗚呼라 鷄旣鳴의오 東方이 旣白의라 其以兩手로 擦開睡餘之眼而讀之면 非惟吾之幸이라 亦 諸公之幸也오 非惟諸公之幸이라 亦 全國之幸也라 ᄒᆞ노라.[44]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

43) 윤치호(尹致昊),「大韓自强會月報序」, 『대한자강회월보』 제1호, 1906. 7.
44) 이기(李沂),「大韓自强會月報序」, 『대한자강회월보』 제1호, 1906. 7.

ㄱ은 윤치호가 쓴 국한혼용문 서문으로, 손님(客)과 나(餘)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독특하다. ‘자강회’의 이름과 취지에 대한 속사정을 묻는 손님의 질문에, 자강회의 취지와 명칭은 겉과 속이 균일하며 미덥지 못하거든 본회 월보에 바로잡기를 청하라는 강한 어조의 글쓴이의 대답, 그리고 이를 수긍하는 손님의 반응으로 글이 마무리된다. 글의 구성이 마치 중국에서 유래하여 고려 후기와 조선 시대까지 지어졌던 ‘설(說)’의 글쓰기 방식과 닮아있다. 글의 서사 방식은 한문 글쓰기의 문법 구조가 지배적이고 국문 조사의 사용도 다채롭지 못하며, 한문 종결사와 연결사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국문의 통사구조로 배열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구결식 국한문체’가 아닌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의 국한혼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윤치호의 글이 일반인에게 자강회의 취지와 명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면, ㄴ의 이기(李沂)가 쓴 국한혼용문은 잡지의 본격적인 발간 취지를 제시하여 대상 독자층을 보여준다. 회보의 발간은 본질적으로 자강회 회원이 자강의 도를 구하는데 있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도 읽히기를 바라고 있음을 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 월보를 읽어 ‘자강의 도’를 통해 국가의 정치를 개선하고 세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친목 도모와 학식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던 유학생지의 취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

ㄴ의 서문은 ㄱ의 문답체식 서문에 비해 국문 구문법에 가까운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국한혼용문 특징이 조금씩 엿보인다. 1유형에 비해 구절은 다소 분리되어 한문 문장이 구절의 형태로 해체되었다. 4자 대구로 연결되는 한문 구절에서 한문 특유의 수사법이 남아있다. ‘국가(國家), 정치(政治), 세계(世界)’ 등의 새로운 어휘가 사용됐지만, 유학생 잡지에 비교하면 신어(新語)의 사용 비율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한문 글쓰기

에서 애용하는 어휘와 상투적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

대한자강회의 활동은 후신 조직인 대한협회로 이어진다. 대한협회는 1908년 4월부터 『대한협회회보』를 발행했는데, 『대한자강회월보』와 편집 체제는 비슷하지만 기사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취지서를 살펴보면 대한협회의 단체의 성격과 목적이 전신인 대한자강회와는 다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嗚呼라 我韓이 國於東亞一隅ᄒᆞ야 不能與世運伴進者ㅣ 迄數百年에 政治焉紊廢ᄒᆞ며 敎育焉弛退ᄒᆞ며 産業焉衰乏ᄒᆞ야 竟至於失自立之力而引友邦之援ᄒᆞ니 興言及此에 俯仰愧怍이라. 然今欲坐俟自滅則已矣로되 苟或有自立之志則豈可一任於友邦之賢勞而不思所以互相推引之道ᄒᆞ고 矇然退伏ᄒᆞ야 以待文明幸福之自至耶아 …(중략)… 乃玆 組織一團ᄒᆞ고 名之以大韓協會ᄒᆞ니 其 趣旨則 要在講究乎政治 敎育 産業ᄒᆞ야 發達社會智識ᄒᆞ며 陶冶新進德性ᄒᆞ며 增進全國富力ᄒᆞ야 以之養成我眞個國民的資格而已니 此誠 今日之 急務라.[45]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취지서(趣旨書)」에서 밝히는 대한협회의 취지는 정치와 교육, 산업을 강구하고 사회의 지식을 발달시켜 신진 덕성을 도야하며, 전국의 부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자격을 양성하는 급무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서사 방식이나 글투는 대한자강회의 것과 비슷하나, 자강회의 취지문에서 '자강(自强)'이나 '독립(獨立)'이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대한협회의 서문은 자강과 독립의 의의가 많이 약화된 논조를 보여준다.

국한혼용문의 서사 방식 역시 앞의 『대한자강회월보』와 유사하지만, 어휘 사용에 있어서는 한문 어휘보다 신어(新語)의 사용빈도가 훨씬 높은 편이었다. '산업(産業), 정치(政治), 교육(敎育), 종교(宗敎), 사상(思想), 문명

45) 「大韓協會趣旨書」,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 4.

(文明), 협회(協會), 조직(組織), 발달(發達)’을 비롯하여 다른 취지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복(幸福)’도 사용됐다.

『조양보』부터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에 이르는 국내 정치 단체의 기관지는 창간취지서에 있어 순한문이나 국한혼용문의 표기방식을 선호했다. 국한혼용문의 경우 한문 글쓰기에 가까운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과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유학생 잡지도 국한혼용문으로 되어있지만 다소 다른 서사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잡지의 발간 취지, 필진의 특성, 대상 독자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유학생회지는 신학문의 수용과 전파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그 목적에 유용한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의 국한혼용문 서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반면 국내 정치 단체의 잡지는 주요 필진이 한문 전통의 글쓰기와 논리에 익숙한 장지연, 박은식, 이기 등의 국내 지식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순한문 표기 방식, 혹은 한문 구문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1유형과 2유형의 국한혼용문이 그들의 논리를 펼치기에 더욱 효율적인 서사 방식이 되었을 것이다.

4.2.2. 지역 중심 학회지

정치 단체가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며 독립과 자강을 강조했다면, 학회는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의 지식인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지방의 구국 계몽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애국 계몽 운동은 지식인, 관료 등을 중심으로 학교설립과 산업진흥, 신문과 잡지의 발간 등을 통해 경제와 문화를 양성하여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둔다. 학회는 그 중에서도 교육 구국 운동에 앞장선 단체로, ‘학회’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교육과 지식의 전달

에 집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회인 서우학회는 1906년 10월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구국계몽단체이다. 다음은 『서우(서우학회월보)』 의 주필 박은식(朴殷植)이 쓴 「본회취지서(本會趣旨書)」의 일부이다.

> 今日 吾人이 如此히 劇烈ᄒᆞᆫ 風潮를 撞着ᄒᆞ야 大而國家와 小而身家의 自保自全之策을 講究ᄒᆞ면 我同胞靑年의 敎育을 開導 勉勵ᄒᆞ야 人才를 養成ᄒᆞ며 衆智를 啓發ᄒᆞᆷ이 卽 是國權을 恢復ᄒᆞ고 人權을 伸張ᄒᆞᄂᆞᆫ 基礎라. 然이나 此 重大事業을 振起擴張코ᄌᆞᄒᆞ면 公衆의 團體力을 必資ᄒᆞᆯ지니 此ᄂᆞᆫ 今日 西友學會의 發起ᄒᆞᆫ 所以라. 蓋 域於國中ᄒᆞ야 平安과 黃海의 兩道를 兩西라 謂ᄒᆞᄂᆞ니 吾兩西의 士友學會를 胡爲乎漢城中央고 竊嘗觀之컨ᄃᆡ 年來 吾兩西의 憂時愛國之士가 注意時務ᄒᆞ야 所在 學校가 相繼而興ᄒᆞ니 比諸他方ᄒᆞ면 差有進境이나 …(중략)… 且 子弟敎育을 到底發達코ᄌᆞᄒᆞ면 先히 其 父兄의 熱心을 激起ᄒᆞ야 飢者의 食과 渴者의 飮과 如히 得此則活ᄒᆞ고 不得此則死ᄒᆞᆯ쥴로 認知케ᄒᆞᆫ 然後에 子弟敎育을 爲ᄒᆞ야 不憚勞不吝財ᄒᆞ고 竭力做去ᄒᆞᆯ지니 所以로 本會에셔 每月 雜誌를 發刊ᄒᆞ야 學齡已過ᄒᆞᆫ 人員의 購覽을 供給ᄒᆞ야 普通知識을 開牖코져 ᄒᆞᆷ이니 此도 漢城中央에셔 西方見聞을 接受ᄒᆞ야 輯成印行ᄒᆞᄂᆞᆫ 것이 便宜ᄒᆞ도다.[46]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서우학회는 지역을 구국 계몽할 목적으로 구성된 학회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실태를 살피는 것부터 취지를 밝힌다. 박은식은 취지서를 통해 황해와 평안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서우학회는 동포 청년의 교육을 장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혜를 계발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취지서의 중반부에 '學齡已過ᄒᆞᆫ 人

46) 박은식(朴殷植), 「本會趣旨書」, 『서우』 제1호, 1906. 12.

員’이라고 독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학령기를 지난 독자들에게 보통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 학보를 발간함을 밝혔다.

서사 방식은 2유형 국한혼용문의 요소가 잔존한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류)으로 파악된다. 접속사나 문장의 종결부에 한문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관형격조사 ‘之’의 일부는 ‘의’로 고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 용언구는 ‘2음절 한자 + ᄒᆞ’ 용언과 ‘2음절 + 2음절 + ᄒᆞ-’ 용언의 형태가 많이 사용됐다. 특히 이 글에 사용된 ‘2음절 + 2음절 + ᄒᆞ-’ 용언은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有初鮮終, 徒糜資斧ᄒᆞᆯ’의 어구처럼 대립과 중첩 등의 한문 수사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용언구와, ‘振起擴張코ᄌᆞᄒᆞ면, 導率奬勵ᄒᆞ, 注意時務ᄒᆞ야’와 같이 2음절씩 따로 떼어도 하나의 단어로 성립하는 용언구의 경우가 있다. 이 취지문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으로 용언구에 있어 한문 수사법의 간섭을 조금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서우학회의 취지서는 국문 구문법에 기반을 둔 3유형이 특성이 강하면서도 ‘得此則活ᄒᆞ고 不得此則死ᄒᆞᆯ쥴로’와 같이 부분적으로 한문 문장을 살려서 쓸 필요가 있거나, 수사적으로 대구 등의 효과가 필요한 경우 한문 특유의 수사법이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정치 단체의 잡지에 비해 지방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낮은 지식 수준의 학령기를 갓 넘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목적을 띠기 때문에 더욱 쉬운 유형의 국한혼용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학보』는 1908년 6월 창간된 호남학회의 기관지로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족된 단체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학회로는 서우학회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는데, 편집 겸 발행을 맡은 이기(李沂)가 발간취지서를 작성했다.

學會者ᄂᆞᆫ 蓋以學事會集ᄒᆞ야 而勸人就學也라. 今有不就學者ᄋᆡ 一人이 勸焉이면 則未必聽이로ᄃᆡ 衆人이 勸焉이면 則無不聽ᄒᆞᄂᆞ니 人生斯世에 非能高飛遠走ᄒᆞ야 不在人間者也라. 如或衆勸而不聽이면 則恐爲斯世所棄故爾라. …(중략)… 用衆人之力ᄒᆞ야 今日而勸焉ᄒᆞ고 明日而又勸焉ᄒᆞ야 期於必聽而後에 已ᄒᆞ니 此所以月報之不得不作也라. …(중략)… 其敎之始에 雖號稱文明國民이라도 亦必以强制行之ᄒᆞ야 人有子弟不就學者면 輒罰其父兄이ᄂᆞ 然吾輩其可以此로 望於今日政府耶아. 今年不行ᄒᆞ고 明年不行ᄒᆞ야 終至於邱墟其國ᄒᆞ고 奴隸其民而已리니 則爲吾輩者ㅣ 可不恐懼警勵ᄒᆞ야 亟爲之備哉아. 此又所以學會之不得不設이오 而月報之不得不作也라. 但其所述이 旣以新學爲說ᄒᆞ니 則人皆創見이라 必生異議나 然吾輩도 亦愛名者也라 豈敢以不經之論으로 冒陳於諸公ᄒᆞ야 自取謗毁哉아. 其實은 與舊學으로 文辭雖殊나 而義理則同ᄒᆞ야 有非截然爲兩物者也라. 古人이 云狂夫之言도 聖人이 擇焉이라 ᄒᆞ니 吾輩ᄂᆞᆫ 縱不免狂夫나 而諸公은 豈不欲爲聖人耶아 幸於此에 一擇之再擇之ᄒᆞ야 存其善而去其不善이면 是區區之所望也로라.[47]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월보발간서(月報發刊序)」에 드러난 취지로 볼 때, 호남학회는 지역의 교육 진흥과 학교 설립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명이 의견을 건의하기보다, 여럿이 모여 집단으로 학교를 설립토록 건의한다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임을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학보를 발행했다. 서우학회처럼 학회지를 통해 학령기가 넘은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 설립을 위해 지방의 지식인이 모여 단체 설립과 회지 발간을 목적했기 때문에 『호남학보』의 국한혼용문 유형은 서우학회보다 한문체의 간섭도가 높은 편이다. 이 취지서의 필자는 앞 절에서 살펴본 『대한자강회월보』의 서문을 쓴 이기(李沂)로, 『호남학보』의 취지서 역시 한문의 글쓰기에 논리를 두고 있

47) 이기(李沂),「湖南學會月報發刊序」, 『호남학보』 제1호, 1908. 6.

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단체의 취지상 호남지방의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글이기에, 다양한 신어(新語)의 사용보다도 옛 성인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나 고사성어의 사용이 빈번한 경향을 보인다.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지역에서는 1908년 1월 지방을 대표하는 기호흥학회가 조직되었고, 여기에서 『기호흥학회월보』를 창간한다. 기호흥학회 역시 민족 자강을 위한 교육 계몽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호 지방 일원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학업을 권장하고 회보를 간행하여 일반인사에게도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惟我畿湖ᄂᆞᆫ 文化之樞오 俊彦之鄕이니 一國之中心이오 全城之範式이라. …(중략)… 階玆人心이 渙散에 上下가 離德ᄒᆞ고 學校가 不興에 習俗이 野味ᄒᆞ고 實業이 不振에 國力이 瘠削ᄒᆞ고 政治가 紊亂에 主權이 外移ᄒᆞ니 此皆畿湖人所不可逭之責也ㅣ라 …(중략)… 惟我同人이 悔心所發에 詢謀僉同ᄒᆞ야 玆設一會ᄒᆞ고 命名曰 畿湖興學會라ᄒᆞ노니 盖一片之精神이 不外乎振興學問一事也ㅣ라 擬欲建設學校ᄒᆞ야 養成俊乂ᄒᆞ고 派遣各地ᄒᆞ야 敎育全國靑年ᄒᆞ노니 此誠不可少緩之急務也夫ᄂᆡ져 嗚呼ㅣ라 世變之劇에 桑田이 幾作碧海區區一會가 纔起於至痛極苦之今日ᄒᆞ니 吁亦晩矣로다 惟其精誠所到에 金石이 爲開ᄒᆞ고 衆心所矢에 天意를 可轉이니 唯我畿湖內有情有性之一般人士ᄂᆞᆫ 本會目的을 一心戮力ᄒᆞ야 期復己墜之國權ᄒᆞ고 誓活己死之民族哉어다[48] (띄어쓰기 - 필자)

『기호흥학회월보』의 「본보취지서(本報趣旨書)」는 기호지방의 학문을 진흥시키고 학교를 건설하며, 준예를 양성하고 전국에 파견할 청년을 교육하는데 목표를 둔다. 앞의 호남학회의 학회지와 마찬가지로 잡지의 발간 취지가 직접적인 교육 계몽을 위함이라기 보다는, 학회지를 통해 지방 출신 지식인들

48) 「本報趣旨書」,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1908. 8.

의 단결과 지역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자층의 지식 수준이 높은 편이고, 『호남학보』와 유사한 국한혼용문 서사 방식을 보인다. 용언구는 한문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했고 체언구의 경우도 관형격조사 '之'가 문면에 드러나 한문 구문법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장의 연결부와 종결부에 한문 어조사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등 많은 부분에 한문 글쓰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표현에서도 4자 대구인 '只知有身에 不之有人ᄒᆞ고 只知有家에 不之有國타가'의 한문 수사법적 문장이 많은 편이다. '秋月春風(추월춘풍), 高臺廣室(고대광실), 歷歷可數(역력가수), 武斷鄕曲(무단향곡)' 등의 4자 한문구도 상당부분 남아있어, 한문 글쓰기에 익숙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어휘면에서는 '국가(國家), 국력(國力), 정치(政治), 학문(學問), 건설(建設), 국권(國權)'의 신어(新語)가 사용되었다.

모든 학회지가 종간될 즈음인 1908년 3월,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교남교육회가 발족되었고 『교남교육학잡지』를 창간하였다. 다른 학회지가 '회보' 혹은 '월보'로 학회지의 이름을 짓는데 반해 '잡지'라는 명칭을 달고 발간됐다.

> 試觀今日之城中컨ᄃᆡ 鐵道電線과 火車滊船이 皆平日夢想所不到者니 時勢之變이 夫如是矣라 然而是皆從吾人의 學問腦髓中硏究而得者ㅣ오 非神■[49]鬼設者ㅣ라 世界之學術이 多方面■■■之智力이 無窮故로 精益求精ᄒᆞ며 進益求進ᄒᆞ야 以■乎極点又極点은 卽今日敎育之競爭■ㅣ라 …(중략)… 近日各道有志之士가 爲此發起ᄒᆞ야 學會之設이 勃然盛行ᄒᆞ니 惟我嶠南은 素稱鄒魯之名鄕ᄒᆞ고 亦多英俊之子弟라 苟能以杉杉文學之質로 加之以新智之敎育이면 體用이 具備ᄒᆞ고 文質이 兼全ᄒᆞ야 爲異日無窮之需用也어늘 …(중략)… 此ㅣ 嶠南敎育會之所以

49) 원문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으로 표기하였다.

立也ㅣ라 凡我全嶠人士ᄂᆞᆫ 皆各自一己一家之事오 非爲佗人耕織者也ㅣ니 望須協同出力ᄒᆞ야 以期完成ᄒᆞ고 各詔廼子迺弟ᄒᆞ야 以做有用之成材ᄒᆞ면 豈非吾嶺之幸福이며 抑豈非吾國之禎祥歟아 嗟我諸君은 努力勉旃哉어다[50]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교남교육회는 학회의 명칭에서부터 '교육'을 내세우듯이, 취지서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남지역 인사에게 각기 자제를 가르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다른 학회지와는 달리 취지에서 '국가'와 '애국계몽'보다도 교남 지역의 역사와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서사 방식면에서는 한문 구문법을 기반으로 둔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의 국한혼용문을 보여 준다. 이전의 학회지보다 한 걸음 퇴행하여 한문 글쓰기에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다양한 한문 부사, 접속사, 종결사(也, 乎, 哉, 歟)가 사용됐고, 한문 구문법과 한문 수사법의 표현을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어(新語)의 사용도 거의 드물다. 앞의 호남학회, 기호흥학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지식인 인사를 대상 독자로 하여 자제 교육과 지방의 교육적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창간된 잡지이므로 문체 수준이 한문체에 가깝다.

학회지는 공통적으로 지방 인사의 친목 도모와 지식 교환, 지방의 교육적 발전을 핵심 취지로 상정하고 있다. 비교적 한문 글쓰기에 친숙한 지식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문체에 가까운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과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문체를 선호하는 편이다. 앞서 살핀 유학생회지보다 신어(新語)의 사용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50) 「本會趣旨書」, 『교남교육회잡지』 제1호, 1909. 4.

4.3. 전문지와 종합지

4.3.1. 이공계 전문지와 법학 전문지

전문지는 특정한 전문 분야를 다루는 잡지로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신문보다는 잡지의 형태로 발간된다. 전문지의 종류는 취미 오락지, 연예지, 스포츠지부터 문학지, 교육지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근대계몽기는 아직까지 특정 분야만을 다룬 전문지의 발간이 활발했던 시기는 아니었다. 현존하는 근대계몽기의 전문지는 이공계 잡지인 『수리학잡지』(1905)와 『공업계』(1909), 법학정치잡지인 『법정학계』(1907)와 『법학협회잡지』(1908)가 있다.

먼저 이공계 분야의 전문 잡지 두 권을 살펴본다. 『수리학잡지』는 유일선(柳一宣)이 발행한 수리학 분야의 최초의 잡지로, 우리나라에 수리학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창간되었다. 『수리학잡지』는 1905년 12월 창간되어 1906년 9월 통권 8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然則 數理學의 普及이 國民敎育의 莫先急務어날 現今 我韓學生은 學問의 根本를 不曉■로 數理學의 功用을 等棄ᄒᆞ여 均是天與之美質로 文明之澤을 不得均霑ᄒᆞ니 盖吾人의 最所遺憾處■ㅣ로다. 故로 於此에 不顧鹵莽淺學ᄒᆞ고 數理學雜誌을 發刊ᄒᆞ야 敎育當事者의 一分警束을 敢助ᄒᆞ노라. 然而 數學之中에 筭術, 代數, 幾何, 三角, 微積分 等科와 理學之中에 動物, 植物理, 化學, 鑛物, 天文, 地文分 等가 各有ᄒᆞ니 其淺近深遠의 輕重을 區分ᄒᆞ여 讀者諸氏의 學力高下를 叅互ᄒᆞ여 學力之高下等을 勿拘ᄒᆞ고 學習之便을 俱得케ᄒᆞ여 一般學生의 愛讀을 猥蒙코져ᄒᆞ나 遠水ᄂᆞᆫ 近火를 不救ᄒᆞ나니 我國多數靑年의 敎育程度를 回顧컨ᄃᆡ 高遠ᄒᆞᆫ 學科가 還恐不適이요 且 學問之趣味가 始自淺近으로 步步漸

進ᄒᆞ여 咀嚼無遺ᄒᆞᆫ 然後에 津津之味가 自在其中ᄒᆞ니 吾人之本意가 大方諸家의 高評을 欲得ᄒᆞᆷ에 不在ᄒᆞ고 熱誠學生의 昇遠之資를 畢近之間에 確定ᄒᆞ여 他日 國家社會의 萬一幸福을 增進코져ᄒᆞᆷ에 不外ᄒᆞᆫ지라. …(중략)… 今日에 此雜誌를 由ᄒᆞ여 所得ᄒᆞᆫ 効力이 行遠昇高ᄒᆞᄂᆞᆫ 他日之準備에 稗益되기를 企圖ᄒᆞ여 一見에 若小學生徒의 初等敎科이나 其實은 範圍浩大ᄒᆞ여 着心做去ᄒᆞ면 中等以上의 効力의 包在其間ᄒᆞ니 勿論 何許人ᄒᆞ고 自一號로 繼課至終ᄒᆞ면 雖是獨學이라도 多年登校ᄒᆞᆫ 卒業者에 不讓一頭ᄒᆞᆷ을 確信無疑ᄒᆞ노니 購讀諸氏의 愛顧ᄒᆞᆷ이 吾人의 本志를 不歸烏有케ᄒᆞ면 幸甚.[51] (띄어쓰기, 구두점 - 필자)

「발간취지서(發刊趣旨書)」에서는 세계 각국이 수리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해 가는 현실을 소개하고, 우리도 수리학을 익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잡지를 통해 과학사상의 보급과 수리학 교육에 힘쓸 것임을 취지로 밝히고 있다. 취지서에서는 잡지의 창간 목적을 ‘大方諸家의 高評을 欲得ᄒᆞᆷ’에 두지 않고 ‘열성학생’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독자’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수리학 각 분야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구분하여 독자의 학력이 높고 낮음을 헤아려 학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은 독자를 적극 배려한 모습이다.

취지서에 독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교육당사자(敎育當事者)’, ‘청년(靑年)’의 교육정도(敎育程度), ‘일반학생(一般學生)의 애독(愛讀)’, ‘열성학생(熱誠學生)’ 이 있다. 아울러 이 잡지로 공부하면 독학이라도 여러 해 등교한 졸업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대상으로 삼는 독자는 수리학에 관심을 둔 학생층임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표기 역시 학생과 청년층을 교육하기에 적합하며, 신지식을 다루는데 효율적인 3유형(『서유견문(西遊見聞)』 류) 국한혼용문을 선택했다. 그러나 취지서에 부분적으로 관형격

51) 유일선(柳一宣), 「數理學雜誌 發刊趣旨書」, 『수리학잡지』, 1905. 12.

조사 ‘之’로 연결된 체언구, 일부 한문 부사와 접속사, 한문 수사법적 표현(近自日用事物로 遠至天體地軸의)이 남아있어 아직은 체언구와 용언구에 걸친 한문 글쓰기의 간섭이 잔존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잡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던 수리학(數理學)이라는 신학문을 다루고 있기에 신어(新語)와 전문용어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학문(學問), 학생(學生), 교육(敎育), 국민(國民), 당사자(當事者), 취미(趣味)’등의 일반적인 신어와 함께 ‘수학(數學), 이학(理學), 산술(算術), 대수(代數), 기하(幾何), 미적분(微積分), 화학(化學), 천문(天文)’등의 전문용어도 많이 사용됐다.

또 한권의 이공계 전문잡지인 『공업계』는 1909년 1월 창간된 최초의 공업 기술 잡지로써 통권 4호까지 발간되었다. 독립운동가 신규식(申圭植)이 사장 겸 편집인을 맡았고, 대한제국이 설립한 공업 교육 기관인 공업전습소 학생이었던 박찬익(朴贊翊)이 발행인을 맡았다. 박찬익은 공업연구소의 전습생 일동이 발기한 공업연구회의 회장이기도 했는데, 이로 보아 『공업계』는 공업연구회라는 단체의 회지 성격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 ㄱ. 本報 工業界ᄂᆞᆫ 我 大韓帝國의 富强基礎를 建立ᄒᆞ고 二千萬公衆의 工業思想을 鼓吹ᄒᆞᆯ 主義로 實地修學ᄒᆞᆫ 工業各科의 講義와 外他工業에 關ᄒᆞᆫ 高明ᄒᆞᆫ 論說과 新奇ᄒᆞᆫ 彙聞을 編輯刊行ᄒᆞᆷ이니 工業發展에 最大機關이오 工學修習에 惟一寶典이라. 血性이 有ᄒᆞ고 榮譽가 有ᄒᆞᆫ 我一般同胞ᄂᆞᆫ 斯業을 硏究ᄒᆞ고 斯業을 實施ᄒᆞᆯ 義務를 是思ᄒᆞ야 斯報를 拔例賜愛ᄒᆞ심을 心頌頂祝.[52]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52) 「謹告」, 『공업계』 제1호, 1909. 2.

ㄴ. (전략) 반다시 昏衢中에 自暴自棄ᄒᆞ든 惡習을 盡祛ᄒᆞ고 製造品에 至精至微ᄒᆞᆫ 手工을 傳習ᄒᆞ야 士農家의 利用을 酬應ᄒᆞ며 商業界에 貿易을 發達ᄒᆞ야 國富民强에 獨立權을 恢復ᄒᆞ야 春風舞臺에 昇平을 同樂ᄒᆞᆯ지어다. 今我 一般生徒ᄂᆞᆫ 特別이 工業硏究會를 組織ᄒᆞ고 工科를 講演ᄒᆞ며 工術도 討論ᄒᆞ야 月報를 發行ᄒᆞ노니 此ᄂᆞᆫ 吾儕生徒의 知識을 交換ᄒᆞᆯ쁜 아니라 곳 一般同胞의 工業을 硏究ᄒᆞᆷ에 庶幾曰 萬一의 補가 有ᄒᆞᆯ진져 書에 曰允釐百工ᄒᆞ야 庶績이 咸熙라ᄒᆞ니 勉哉勉哉어다. 嗟我大韓同胞여.[53]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ㄱ의 「근고(謹告)」에서는 공업은 실업(實業)이며 국가 부강의 기초이므로, 본 잡지에 실린 공업 강의와 논설, 소식을 익혀 공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취지를 간단히 밝혀 놓았다. ㄴ의 「취지서(趣旨書)」 말미에는 '공업연구회 생도'의 지식교환과 '일반 동포'의 공업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를 제시했다. 결국 대상 독자층을 일차적으로는 '공업연구회'에 두지만, 잡지에 실린 공업의 지식이 공업연구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동포에게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극학보』를 비롯한 유학생회지에서 보이던 취지와 독자층과 비슷하다.

ㄴ의 취지서는 단음절 용언과 2음절· 4음절 체언이 많은 전형적인 3유형의 국한혼용문으로 씌어졌다. 부사는 '반다시(반드시)', '곳(곧)', '엇지(어찌)', '다만' 등 한자 부사어가 전부 고유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시간 표현 부사는 여전히 '昔에', '今에'등으로 표현되어 한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존 명사의 경우도 아직은 고유어로 대치되지 못하고 '者'가 쓰였다. 이 취지서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시대명사의 한글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부 '是'와 '此'가 남아있지만, 비교적으로 국어 지시대명사인 '이, 그, 저'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근대계몽기의 말미

53) 「工業硏究會趣旨書」, 『공업계』 제1호, 1909. 2.

에 이르러 다시 한문에 가까운 유형의 문체로 회귀하는 많은 국한문체 잡지와는 달리, 고유어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국문에 가까운 국한혼용문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업계』는 어휘면에서도 공학(工學)이라는 신학문을 다룬 잡지인 만큼 전문용어의 사용이 다채롭다. '실업(實業), 공업(工業), 상업(商業), 공학(工學), 경제학(經濟學)' 등과 '물품(物品), 소비(消費), 금융(金融), 물산(物産), 제조품(製造品), 생존경쟁(生存競爭)' 과 같은 경제 관련 용어 등이 취지서에 등장했다.

다음은 법학 · 정치학을 다룬 잡지 두 권을 살펴본다. 먼저 1907년 5월 창간된 『법정학계』는 법률과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지로 알려져 있다. 종합지를 표방하긴 했지만, 보성전문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교우회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잡지에 학구적인 기사와 더불어 학교 연혁과 졸업생 명단이 실렸던 것을 보면 전문지와 교우지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噫라. 我大韓이 開國이 五百有十六年이오 通商이 三十有餘年 이로ᄃᆡ 人文이 不闢ᄒᆞ고 形勢를 未解ᄒᆞ야 國家興運과 世界大勢를 不爲預先硏究ᄒᆞ고 徒望自然成立ᄒᆞ야 以是而萎靡不振ᄒᆞ야 至於今日ᄒᆞ니 良可慨痛也ㅣ로다. 我普成專門學校ㅣ 於光武七年에 始設法律經濟二科ᄒᆞ고 延聘高明之士遊學外國者ᄒᆞ야 講究此原理原則ᄒᆞ니 學校的敎授ᄂᆞᆫ 其效力範圍가 不過在學生幾千幾百이나 其主旨目的은 不但止於此ㅣ라. 將以公之於國家與社會ᄒᆞ야 編輯法律經濟學問之衆說ᄒᆞ야 月月刊報ᄒᆞ니 名曰法政學界라. 凡我同胞ᄂᆞᆫ 爭先睹夫ᄒᆞ야 啓發覺悟ᄒᆞ면 豈惟本誌之幸이리오 實社會之幸也오 國家之幸也ㅣ라 ᄒᆞ노라.[54]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54) 「法政學界趣旨書」, 『법정학계』 제1호, 1907. 5.

『법정학계』 취지서에서는 법률과 경제의 학문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효력범위가 보성전문학교 재학생에 그치지만, 법률 경제의 학설을 편집하여 월보를 간행하면 그 잡지를 통해 효력이 우리 동포에게까지 미치기를 소망하고 있다.

서사 방식에서는 이공계 전문지에 비해서는 한문의 간섭 정도가 더욱 강한 편이다. 이는 『법정학계』가 전체적으로 전문지의 특성보다는 교우회적 특성이 강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앞서 살펴본 교우회지 『보중친목회보』에 가까운 서사 방식을 띨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잡지는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과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의 국한혼용문 특성을 보여주며 한문 종결사(也, 焉), 접속사(而, 與), 감탄사(噫라)와 더불어 용언구와 체언구에서 한문의 간섭도가 높게 나타난다. 취지서 이외에 잡지의 다른 기사들 역시 순한문 혹은 한문 구문법의 간섭도가 높은 국한혼용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잡지는 교우회지와 전문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법률(法律), 치국(治國), 경제(經濟), 판결(判決)' 등의 전문 용어도 포함하고 있다.

『법정학계』로부터 1년 뒤에 창간된『법학협회잡지』(1908)는 창간 성격이 조금 달랐다. 1908년 11월 창간된 이 잡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가 단체의 기관지이다.

> 新科學이 我國에 輸入된지 其日이 尙淺ᄒᆞ야 아즉 幼稚ᄒᆞᆫ 狀態를 未免이나 前途의 有望ᄒᆞᆷ이 또ᄒᆞᆫ 此에 正在ᄒᆞᄂᆞ니 此時를 及ᄒᆞ야 是를 振興ᄒᆞᄂᆞᆫ 方策을 不講ᄒᆞ면 其結果의 不幸ᄒᆞᆷ이 莫甚ᄒᆞᆯ지라 吾等이 是를 慮ᄒᆞ며 是를 懼ᄒᆞ야 玆에 一會를 發起組織ᄒᆞ고 法學協會라 命名ᄒᆞ야 政治, 經濟, 法律에 關ᄒᆞᆫ 學理를 討究發揮ᄒᆞᆷ으로 目的ᄒᆞ노니 此三者가 幷히 本會의 目的됨은 元來 其關係가 密着ᄒᆞᆫ 所以며 本會의 精神所在ᄂᆞᆫ 以上畧陳ᄒᆞᆫ 바를 依ᄒᆞ야 可히 推知ᄒᆞᆯ지로

다. 政治, 經濟, 法律은 新學이오 實學이오 二十世紀에 適應ᄒᆞᆫ 學이라 政治를 討究ᄒᆞ야 政治的思想이 發揮되고 經濟를 討究ᄒᆞ야 經濟的思想이 發揮되고 法律을 討究ᄒᆞ야 法律的思想이 發揮되면 治國의 策術과 生活의 法則과 權義의 界限이 自然其中에 存在ᄒᆞᆯ지니 國家에 富强과 社會의 繁榮과 個人에 康樂이 모다 此에 基礎ᄒᆞᆫ다 斷言ᄒᆞᆯ지라 本會가 先驅되야 學風이 日로 發展ᄒᆞ고 社會가 日로 暢明ᄒᆞ면 其結果의 善美ᄒᆞᆷ은 吾輩가 可히 豫先感想ᄒᆞ야 欣喜踊躍ᄒᆞᆯ지로다[55]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법학협회잡지』의 「본회취지서(本會趣旨書)」는 앞서 살핀 『공업계』와 마찬가지로 실학(實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 · 경제 · 법률은 이 시대의 신학문이며 실학문이고, 20세기에 적응한 학문으로 이를 토론하고 연구함을 본 잡지의 목적으로 밝혔다. 국한혼용문 유형 역시 『공업계』 등의 이공계 전문지와 닮아있는데, 한문 단어만 제외하고는 국문의 구문법을 적극 따르고 있어 언문일치가 실현된 문장으로 구성됐다. 지시대명사와 관형사에는 한문 표기가 남아 있지만, 3유형 국한혼용문에 속하며 ‘엇지’, ‘아즉’, ‘ᄯᅩᄒᆞᆫ’, ‘모다’ 등의 국문 부사가 엿보인다. 신어(新語)도 다양하게 포함되었는데, ‘극장(劇場), 의무(義務), 진취적(進取的), 분과(分科), 경영(經營), 수입(輸入), 신학(新學), 세기(世紀)’ 등은 다른 잡지에 드문 어휘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공계 전문지와 법학 전문지는 새로운 학문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잡지로 신어(新語)와 전문용어가 많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공계 전문지는 잡지를 통해 수리학 혹은 공학의 이론과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 독자층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3유형의 국한혼용문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법학 전문지인 『법정학계』와 『법학협회

55) 「本會趣旨書」, 『법학협회잡지』 제1호, 1908. 11.

잡지』는 각각 학교 교우회와 법학 전문가 단체를 기반으로 친목 도모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대상 독자 측면에서 그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체면에서도 이공계 전문지보다는 한문 글쓰기에 좀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4.3.2. 종합 잡지

종합지는 학회나 단체를 기반으로 두지 않고 개별 잡지사에서 발행되었으며, 특정 전문 영역에 치우치지 않은 잡지를 한데 묶었다. 종합지는 간혹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고 하여 상업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잡지가 발간된 취지를 중심으로 두므로 종합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소년한반도』(1906)는 학회지와 기관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출판된 종합지이다. 최남선(崔南善)이 발간한 잡지의 시초로도 유명한데, 1906년 11월에 창간되어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신지식을 선도하는데 발간 목적을 두었다.

> ㄱ. 少年韓半島兮 少年韓半島兮 二千萬圓顱方趾之類兮여. 天下之盛德大業이 孰有過於愛國者乎愛國者兮此何日也ㅣ며 此何辰也오 書之曰唉라. 我歷史上舊社會革命之日也오 乃二十世紀中少年韓半島誕生之辰也ㅣ로다. 今에 爲舊社會革命ᄒᆞ야 搵縷縷之淚ᄒᆞ고 濾滴滴之血ᄒᆞ야 捧心瀝瞻ᄒᆞ고 匍匐奔走ᄒᆞ야 提告于, 我, 有血性有榮譽之二千萬同胞 曰舊社會ᄂᆞᆫ 已矣어니와 我神聖之少年韓半島ᄂᆞᆫ 固自在也ㅣ로다.[56]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56) 「趣旨」, 『소년한반도』 제1호, 1906. 11.

ㄴ. 少年韓半島라 ᄒᆞᄂᆞᆫ 雜誌ᄂᆞᆫ 大韓帝國의 獨立基礎와 自由精神과 平等主義로써 國民的의 腦髓를 滋養ᄒᆞᄂᆞᆫ 神經元素오, 敎育界의 學理를 發明ᄒᆞ난 海上燈臺 云云[57]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소년한반도』의 「취지(趣旨)」를 살펴보면 '구사회의 혁명'이라는 명제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소년한반도』는 이러한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신지식을 수용하고 자유 안보의 민주정체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지향점을 두었다. ㄴ의 「광고」에서 보듯 독자로 하여금 '독립기초'와 '자유정신', '평등주의'를 자양하게 하는데 잡지 발간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하나의 한문 구절의 길이가 길며, 한문 구문법을 기반으로 둔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의 국한혼용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년한반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1유형 문체 텍스트와는 다른 독특한 표현을 갖고 있다. '少年韓半島兮 少年韓半島兮'과 같은 동일한 한문구의 잦은 반복, 그리고 '**捨國事**에 **無**嗜欲ᄒᆞ며 **捨國事**에 **無**忿懥ᄒᆞ며 **捨國事**에 **無**希望ᄒᆞ며 **捨國事**에 **無**爭競ᄒᆞ야'와 '**或以**舌相ᄒᆞ며 **或以**血誠ᄒᆞ며 **或以**機神ᄒᆞ며 **或以**劍氣ᄒᆞ며 **或以**筆諫ᄒᆞ야'와 같이 길게 나타나는 반복과 대구의 한문 수사법적 표현, 마지막으로 '一二愛國者之心之力之腦之舌之血之劍之筆之機之而來者哉아'와 같이 한문 조사 '之'를 활용하여 끝없이 연결된 체언구는 『소년한반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차별화된 글쓰기 방식이다.

취지서 문면에는 독자층을 지칭하는 특별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잡지의 취지 자체가 동시대의 학회지와 달랐기 때문이다. 여타의 학회지와 기관지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설, 연설, 강론 등의 형식을 애용했던 것에 비해, 『소년한반도』의 취지는 근대 분과 학문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다뤄 다수의 독자에게 다가가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구장률(2009:

57) 「광고」, 『소년한반도』.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한반도』는 넓은 독자층을 수용하여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야뢰』는 1907년 2월에 창간된 종합지이며, 매월 발행되다 그해 7월 6호로 종간되었다. 발행 단체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발행인인 오영근(吳榮根)을 중심으로 한 국채 보상 운동을 추진하는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구성됐다.

> 夫動萬物者 莫疾乎 雷聲之大者 亦莫過於雷劇焉. 迅掣盪雲雨 而有餘勢轟 然急激撼山岳 而有餘威至 若陰極 而復一陽有初生之徵澤中則隨羣物有就潤之義 本報之所以取諸此者 將大放厥聲 攪起全國於長夜酣夢之中 千門萬戶次第而 開鼓動焉 奮發焉 瞥見其新面乾坤也 警世晨鐘循道春鐸取 其有聲也[58] (띄어쓰기 - 필자)

『야뢰』는 잡지의 상당 부분을 국채 보상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취지서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많지만, 이 잡지를 통해 국채 보상 운동이 확산되어 활발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취지서 이외에 다른 기사를 보면 학회지나 동인지와 달리 일반 독자 대중을 향해 발간된 종합 잡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앞서 살핀 『소년한반도』 의 경우와 같이, 『야뢰』는 발간이 계속됨에 따라 보성학원과 같은 기관과 연동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신지식의 소개에 앞장서며 종합지이자 교양지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

『소년』은 1908년 11월에 창간되어 근대적 잡지의 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종합 잡지를 표방하며, 최남선(崔南善)이 창간하였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잡지를 통해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서구 문학을 번역하여 도입하기도 했다. 잡지의

58) 오영근(吳榮根), 「趣旨書」, 『야뢰』 제1호, 1907. 2.

체제와 서사 방식면에서도 당대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선구적인 면모를 보였다.

> 今에 我帝國은 우리 少年의 智力을 資하야 我國歷史에 大光彩를 添하고 世界文化에 大貢獻을 爲코뎌하나니 그 任은 重하고 그 責은 大한디라. 本誌는 此責任을 克當할만한 活動的 進取的 發明的 大國民을 養成하기 爲하야 出來한 明星이라 新大韓의 少年은 須臾라도 可離티 못할디라[59]

> 나는 이 雜誌의 刊行하난 趣旨에 對하야 길게 말삼하디 아니호리라. 그러나 한마듸 簡單하게 할 것은 「우리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랴 하면 能」히 이責任을 堪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 이雜誌가 비록 뎍으나 우리同人은 이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야 온갖方法으로 써 힘쓰리라. 少年으로 하야곰 이를 닑게하라 아울너 少年을 訓導하난 父兄으로 하야곰도 이를 닑게하여라.[60]

『소년』에는 일반적인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창간취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취지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3쪽의 짧은 글 조차도 '나는 이 雜誌의 刊行하난 趣旨에 對하야 길게 말삼하디 아니호리라.'라고 직접적으로 밝히며 세 줄의 문장만으로 취지를 대신하고 있다. 다만 그 짧은 글에서 대상 독자층을 '少年'과 '少年을 訓導하난 父兄'으로 언급하고 있다.

『소년』이 가진 문체의 특이성은 많은 논문에서 고찰된 바 있다.[61] 취지

---

59) 『소년』 제1호, 1908. 11. 표지의 잡지명 좌우칸에 실린 글
60) 『소년』 제1호, 3쪽. 1908. 11.
61) 『소년』의 문체를 살핀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희영, 「20세기 초 잡지 《少年》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성」, 『정신문화연구』112, 2008.
임상석, 「『소년』의 문체적 특성과 계몽기 국한문체의 전환」,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조윤정, 「잡지 『少年』과 국민문화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21, 2007.

서 역시 기존의 어떤 국한혼용문의 유형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순국문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독특한 문체를 사용한 것은 먼저 최남선이라는 단독 집필자에 의한 잡지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소년』은 여타의 잡지처럼 다수의 필진과 일반적인 독자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전형적인 유형의 문체를 구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독자층을 위한 배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자를 청소년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국한혼용문보다는 어느 정도 쉽게 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이러한 독특한 문체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45, 2004.

4.4. 교육지와 계몽지

교육 전문지와 계몽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학문의 중요함을 주창하는 '계몽'의 목적을 담지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잡지들은 대상 독자에 따라 문체와 어휘 선택이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종류의 잡지보다도 독자의 지식수준을 적극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교육 전문지는 1908년에 창간된 『장학보』와 『교육월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전문지는 개인의 학문적 성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취지를 가진다. 당시의 교육 잡지는 학교 교육의 보조 혹은 교과서로 활용되는 성격을 가졌다. 1908년 1월 창간된 『장학보』는 사장 박태서(朴太緖)와 편집 겸 발행인 이보상(李輔相) 등 당대 학계 및 문화계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장학보』는 독자 현상 문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독자의 창작 참여 의지를 높이기도 했다.[62] 이 제도는 독자들의 투고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잡지의 광고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 무렵에 나온 잡지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잡지이다.

> 學也者ᄂᆞᆫ 以之博識ᄒᆞ며 以之廣智ᄒᆞ야 用之身 用之家ᄒᆞ며 用之邦國而之天下也라. 雖然이ᄂᆞ 學非勸奬이면 無以推進이오 奬非布報면 莫知優劣이라. 彼歐美列强의 文明富强이 皆由於勸奬學問이 擇用人材를 必取於其中 則其淺學薄識이 如深井短繩이라. 烏能汲引이리요. 今此維新以來로 公私說校가 靡不衆且多矣로ᄃᆡ 朝建以夕廢ᄒᆞ고 東進而西退者ㅣ 十居八九ᄒᆞ니 此實由無勸奬力所致也라. 盖夫學力不振이 卽國力不振이니 豈不寒心哉아. 略個同志로 共設此報ᄒᆞ고 名之曰奬學月報라ᄒᆞ니 學界俊彦은 此月報로 認爲機關ᄒᆞ야 互相興起어다. …(중략)…

62) 김영민(2011: 99)

富豪ㅣ 不能奪其德ᄒᆞ고 兵力이 不能壓其權ᄒᆞ리니 大哉라 學也며 偉哉라 報也여. 惟我同胞ᄂᆞᆫ 勉旃勉旃[63] (띄어쓰기 및 구두점 - 필자)

『장학보』의 「발행취지서(發行趣旨書)」에서는 '배움'과 '학문'을 강조하였고, 학교 교육의 현실이 좋지 못함을 개탄하며 본 잡지를 통해 학력을 향상하여 국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창간취지서에는 구체적인 대상 독자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았고, 1유형(『신단공안(神斷公案)』 류)의 국한혼용문으로 한문의 간섭도가 높은 편이다. '以之博識ᄒᆞ며 以之廣智ᄒᆞ야'와 '用之身 用之家ᄒᆞ며 用之邦國而之天下也라.', '大哉라 學也며 偉哉라 報也여.' 등의 표현은 한문 수사법을 그대로 보여준다.

『장학보』의 취지서는 학령기 혹은 학령기를 갓 넘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 목적의 잡지들이 쉬운 문체를 선택했던 경향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장학보』는 다른 교육 잡지와는 달리 독자 투고가 활발했던 잡지였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직접적인 글쓰기 참여가 가능했던 독자층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독자층의 지식수준이 청년층의 수준보다는 높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한문체와 가까운 유형의 문체로 취지서를 작성했더라도 독해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학보』가 창간된 후 6개월 뒤에 창간된 『교육월보』(1908)는 똑같이 교육을 통한 계몽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 독자층이 더욱 분명했다. 이 무렵의 다른 잡지들이 국한혼용문을 택할 때, 이 잡지만은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순한글로 발행됐다.

(전략) ᄆᆡ양 유지ᄒᆞᆫ 쟈의 탄식ᄒᆞᄂᆞᆫ 바ㅣ러니 근ᄅᆡ 본인등이 각각 ᄌᆞ본을 구취ᄒᆞ야 한 회샤를 조직ᄒᆞ고 이칙을 발간ᄒᆞ야 무식ᄒᆞᆫ 동포들이 알아보기 쉽도

63) 「發行趣旨書」, 『장학보』 제1호, 1908. 1.

록 각ᄉᆡᆨ 긴요ᄒᆞᆫ 학문만 쏩아셔 달달이 한권식을 출판ᄒᆞ되 일홈은 교육월보라 ᄒᆞ니 비록 나무ᄒᆞᄂᆞᆫ ᄋᆞ히와 무식ᄒᆞᆫ 부인이라도 첫권 븟허 공부ᄒᆞ면 삼ᄉᆞ삭을 지나지 못ᄒᆞ야 한문 공부를 십년ᄒᆞᆫ것 보다 ᄇᆡᆨᄇᆡ나 나흘것은 지각잇ᄂᆞᆫ 쟈를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가히 알지라 …(중략)… ᄇᆡ호지 못ᄒᆞᆫ 우리이쳔만 동포로 ᄒᆞ여금 ᄆᆡ삭에 한권식 사셔 아츰 져녁 노ᄂᆞᆫ 겨를과 일ᄒᆞ다가 쉬ᄂᆞᆫ ᄯᅴ와 심지어 화륜챠 화륜션을 ᄐᆞ고 단길 ᄯᅴ라도 놀고 잠자지 말고 열람ᄒᆞ면 젼국 동포가 모ᄃᆞ 큰 학쟈가 될것은 뎡ᄒᆞᆫ 일이니 그러케 되면 거의 무너진 우리대한큰집을 바로잡아 ᄂᆞᆷ의 압졔를 면ᄒᆞ고 ᄌᆞ쥬독립을 회복ᄒᆞ야 셰계에 동등 ᄃᆡ졉을 밧기가 어렵지 아니ᄒᆞᆯ 줄노 밋고 밋노니 동포들은 힘쓸지어다 64)

「교육월보 취지셔」에서는 국가의 흥망은 국민의 지식 여하에 있으므로 교육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큰 기관이라 강조한다. 본 잡지를 틈틈이 읽고 공부한다면 전국 동포가 모두 학자가 될 것이며 결국은 자주 독립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겨를, ᄋᆞ히(아해)’ 등의 쉬운 고유어가 많이 사용됐다.

취지서에서 대상 독자를 ‘나무ᄒᆞᄂᆞᆫ ᄋᆞ히’와 ‘무식ᄒᆞᆫ 부인’, ‘ᄇᆡ호지 못ᄒᆞᆫ 우리 이쳔만 동포’등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바로 앞에 살폈던 교육 잡지 『장학보』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한혼용문이 아닌 순국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육에 있어 열악한 환경을 가진 이들을 위해 교육 전문지가 존재했다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졌던 여성을 위한 여성 계몽지도 속속 창간되었다. 『녀ᄌᆞ지남』(1908)은 ‘여성을 가르친다’는 뜻을 가진 제목의 잡지로, 1908년 5월 창간되었다. 이 잡지는 여자교육회의 부속학교인 여성 교육 기관 ‘여

64) 「교육월보취지셔」, 『교육월보』 제1호, 1908. 6.

자보학원’에서 발간한 월보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같은 해 8월 창간된 『자선부인회잡지』(1908)는 여성 자선단체인 ‘자선부인회’가 창간한 여성잡지이다. 『가뎡잡지』는 모든 필자가 남성이며 주로 여성들을 훈육하고 계도하는 담론을 펼쳤지만, 1908년 창간된 두 여성 잡지는 여성 단체를 근간으로 발간되어 주요 필진이 여성이었다는 점은 앞선 잡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65]

ㄱ. (전략) 녀ᄌᆞ교육은 ᄒᆞᆫ가지 ᄲᅮᆫ이 안이고 곳 두 길이 잇스니 쳣지ᄂᆞᆫ 어린 녀ᄌᆞ를 유치원에 인도ᄒᆞ야 양지양능을 온젼이 발달시겨야 ᄎᆞᄎᆞ 소학교와 고등학교와 ᄃᆡ학교에 입학ᄒᆞ야 녀ᄌᆞ의 학식과 도덕을 구비케 셩취시기ᄂᆞᆫ 것이오 둘지ᄂᆞᆫ 연치가 발셔 셩년되야 학교에 입학ᄒᆞᆯ 슈 업ᄂᆞᆫ 녀ᄌᆞᄂᆞᆫ 학교에 안이가고도 족히 녀ᄌᆞ의 학식과 도덕을 발달ᄒᆞᆯ만ᄒᆞᆫ 고금력ᄉᆞ와 각죵 학과와 동셔양물졍셰ᄐᆡ를 다 거두와 녀ᄌᆞ교육잡지라 ᄒᆞᄂᆞᆫ 셔칙을 간힝ᄒᆞ야 고명ᄒᆞᆫ 지식과 셰계 물졍을 안져 ᄭᅦ다려 녀즁군ᄌᆞ와 녀즁호걸을 지어 능히 완젼ᄒᆞᆫ 남ᄌᆞ와 갓치 명예를 경쟁ᄒᆞ며 ᄉᆞ업을 경영ᄒᆞ야 ᄒᆞᆫ몸과 ᄒᆞᆫ집으로 ᄒᆞ야금 지극히 영광스러이 ᄒᆞ며 ᄒᆞᆫ나라와 ᄒᆞᆫ셰계로 ᄒᆞ야금 급히 문명케ᄒᆞᆯ지니 엇지 크지 안이며 엇지 유쾌치 안이리오마ᄂᆞᆫ 이ᄂᆞᆫ 진실로 인도와 국가를 크게 위ᄒᆞ야 깁히 근심ᄒᆞ며 크게 ᄲᅳᆺᄒᆞ지 안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면 그뉘가 능히 담임ᄒᆞ리오 쟝ᄒᆞᆷ이여 아람다옴이여 (후략)[66] (띄어쓰기 - 필자)

ㄴ. (전략) 문명각국에 잇ᄂᆞᆫ 자선회를 모방ᄒᆞ야 자선부인회를 설립ᄒᆞ얏스니 인자ᄒᆞ고 착ᄒᆞᆫ 마음이 남ᄌᆞ보다 녀ᄌᆞ가 더 잇슴으로 동셔양에 부인ᄉᆞ회의 자선회가 잇슴은 일반이로ᄃᆡ 이회가 셜립ᄒᆞᆫ지도 멧달 못되고 회원도 멧ᄲᅮᆫ 못됨으로 ᄌᆡ졍이 극히 곤란ᄒᆞ야 자선목뎍을 아직 실힝치못ᄒᆞᆷ을 크게근심ᄒᆞᄂᆞᆫᄃᆡ 말

65) 홍인숙(2006: 107)
66) 윤치오(尹致昕,) 「녀ᄌᆞ지남월보취지셔」, 『녀ᄌᆞ지남』 제1호, 1908. 5.

미야마 이 잡지를 발간ᄒᆞ기로 계획ᄒᆞ얏스ᄂᆞ 이것으로 ᄒᆞ야금 직졍을 모집ᄒᆞ자ᄂᆞᆫ 것도 아니오 단지 부인 안목에 널니 보시게ᄒᆞ야 쳣지ᄂᆞᆫ 이 글을 보시고 자선심이 유연히 감발ᄒᆞ야 각각 하ᄂᆞᆯ이 쥬신 착ᄒᆞᆫ성품근본이 발가지시기를 바라며 둘지ᄂᆞᆫ 이자선부인회의 목적이 도달ᄒᆞ기로 찬셩ᄒᆞ시기를 바라ᄂᆞᆫ 마음으로 이 잡지를 발힝ᄒᆞᄂᆞᆫ 바라. 이 잡지를 국문으로 발간ᄒᆞᆷ은 일반동포자ᄆᆡ의 쳥람을 공코자ᄒᆞᆷ이오니 일월에 일ᄎᆞ식 구람ᄒᆞ시와 이 잡지의 문법도 비평ᄒᆞ시고 자선의무의 미달ᄒᆞᆷ도 경계ᄒᆞ야 주시기를 앙망ᄒᆞ오며 …(중략)… 만일 이잡지로 인ᄒᆞ야 일반 동포ᄌᆞᄆᆡ의 자선심이ᄃᆡ발젼 될 지경이면 비단 본회의 목적을 도달ᄒᆞᆷ쑨 아니라 젼국부인의 자선심이 감동ᄒᆞ야 하ᄂᆞᆯ이쥬신 착ᄒᆞᆫ성품근본이 각각 회복ᄒᆞᆯ것이니 이 잡지의 유죠ᄒᆞᆷ이 만에 ᄒᆞ나이라도 잇다ᄒᆞ리로다.[67] (구두점 - 필자)

잡지의 창간취지서를 살펴보면 두 잡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ㄱ의 『녀ᄌᆞ지남』 창간취지서는 '이미 성년이 되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도 이 잡지를 통해 학식과 도덕을 발달할 만한 각종 학과 학문과 동서양 물정 세태를 접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취한다. 잡지의 전체적인 논조 역시 남녀 평등과 여자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집중했다.

ㄴ의 『자선부인회잡지』는 '일반 동포 자매' 혹은 '부인층'을 대상 독자로 삼아 이 잡지로 인해 '일반 동포 자매의 자선심이 발전'하고 '전국 부인의 자선심이 감동'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로 자선의 중요성, 자녀 교육과 육아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근대계몽기에 발간되었던 세 종류의 여성잡지는 공통적으로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독자의 지식수준이 미묘하게 달랐고,

67) 「발간취지」, 『자선부인회잡지』 제1호, 1908. 5.

이에 따라 체제와 내용, 문체의 난이도를 조금씩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5. 결론

오늘날의 글쓰기의 기원을 묻는 일은 근대계몽기의 글쓰기를 살피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근대계몽기의 글쓰기는 이전까지의 주류였던 순한문과 국문 운동으로 떠오른 순국문, 그리고 국한혼용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사 방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근대계몽기의 다채로운 서사 방식은 변화와 실험을 거쳐 현대의 글쓰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근대계몽기 잡지의 창간취지서는 국한혼용문 서사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한혼용문은 근대계몽기에 등장한 새로운 글쓰기 방식으로, 단순히 한자와 한글이 섞인 단일한 표기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국한혼용문은 글의 문장이 기존의 지배적인 글쓰기 방식이었던 한문 구문법의 간섭을 얼마나 받고있는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국한혼용문의 유형을 가름하는 기준은 한문 체언구와 용언구가 한문체의 간섭을 벗어나 얼마나 해체되었는가를이다. 본고에서는 국한혼용문 창간취지서를 비교적 객관적인 문체 유형 분류 틀을 활용해 유형화했다. 근대계몽기의 창간취지서는 1유형 (『신단공안(神斷公案)』 류)과 2유형(『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류), 3유형 (『서유견문(西遊見聞)』 류)의 국한혼용문 유형 범주에서 각기 특성을 달리하며 나타났다. 창간취지서의 국한혼용문은 때로는 같은 표현이라도 글의 취지나 독자층에 따라 한문구가 해체되기도 하고 다시 긴 한문구로 합쳐지기도 하였으며, 한 텍스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체 유형의 특징이 섞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한혼용문 서사 방식의 다양한 양상은 글의 필자가 기존의 한문 구문법과 국문 구문법의 사이에서 잡지 창간의 취지나 대상 독자층의 문식성 등 글쓰기의 다른 요소를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창간취지서의 국한혼용문은 통시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3유형을, 후반기인 1910년에 가까워질수록 순한문에 가까운 1유형 혹은 2유형의 문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근대계몽기 초기에 한글 실사를 다수 포함한 4유형(『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류)에 가까운 서사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대계몽기 말미에 이르러 한문 구결체에 가까운 1유형의 국한혼용문이 쓰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사 방식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 한문체의 간섭을 덜어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창간취지서의 서사 방식이 잡지의 취지나 독자 등 다른 이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계몽기의 잡지의 다수는 국한혼용문으로 쓰여진 가운데, 일부 잡지는 순한문체 혹은 순국만체를 유지했다. 순한문의 서사 방식을 택한 잡지는 한문 글쓰기에서 논리를 펼치기 익숙했던 필자의 지식 구조의 이유이거나, 의도적으로 순한문체를 선택하여 필진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유로 순한문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순국문의 서사 방식을 선택한 잡지는 대상 독자의 문식성을 적극 고려한 결과이다. 같은 순국문 표기의 글이라 하더라도 세부 독자층의 지식 수준에 따라 서사 방식과 어휘 선택의 난이도를 달리한다.

창간취지서의 서사 방식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근대계몽기 글쓰기의 서사 방식은 잡지의 창간 취지나 대상 독자층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잡지의 취지서를 창간 취지와 주제를 고려하여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학생회지와 교지, 기관지와 학회지, 전문지는 대부분 국한혼용문의 서사 방식을 채택했다. 지식 교환과 친목 도모, 신지식 전달에 힘썼던 유학생 회지는 주로 국문에 가까운 3유형의 국한혼용문을 사용했으며, 국내와 지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신학문을 접하기 쉬웠던 만큼 한문의 지식 구조를 가진 국내의 지식인들과 달리 유학생회들만의 독특한 문체 양상과 폭넓은 신어휘의

사용을 엿볼 수 있다. 동일한 지식수준을 가진 학우들로 구성된 교우회에서 발간된 교지는 폐쇄적인 지식인 집단인 탓에 한문의 구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1유형과 2유형의 국한혼용문으로 씌어졌다.

국내에서 발간된 정치단체 기관지 역시 1유형과 2유형의 국한혼용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문 글쓰기에 익숙하며 논리를 강조하는 수준 높은 필자의 영향으로 한문 글쓰기 특유의 수사적 표현과 어휘, 상투적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지역 중심 학회지를 상세히 살펴본 바, 최초의 지역 학회인 서우학회는 학령기를 지난 독자층을 대상으로 보통 지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두었으므로 비교적 쉬운 3유형을 선택했다. 하지만 계몽기의 말미에 발간됐던 학회지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지식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교육 진흥과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잡지를 창간했기 때문에, 비교적 한문 글쓰기에 익숙한 독자를 위해 1유형과 2유형의 국한혼용문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전문지와 교육지, 계몽지는 다루는 지식의 수준, 대상 독자층의 문식성(文識性)과 지식수준을 적극 고려하여 문체를 선택했다. 전달하는 지식이 서양의 신지식이거나 수준이 높은 독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국한혼용문을 선호했다. 전문지는 신학문을 적극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포함한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엿보인다. 유학생지와 마찬가지로 신학문의 설명과 전달에 용이한 3유형의 국한혼용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학 전문지는 법학과 경제학 등의 신학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공계 전문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교우회나 법률가 단체를 기반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독자와 필자 집단이 폐쇄적이므로 학교잡지와 유사한 1유형과 2유형의 국한혼용문을 보여준다. 교과서 수준의 교육이나 계몽을 위한 쉬운 지식을 담은 잡지는 순국문 서사방식을 선호했다. 순국문 표기는 부녀자층을 위한 잡지와 종교지, 교민 대상의 잡지에 사용됐는데, 다른 문체에 비해 가리키고

있는 독자층이 선명히 드러나며, 취지 역시 독자층의 계몽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다.

근대계몽기 잡지의 창간취지서는 단순히 새로운 잡지의 창간 의지를 담는데 그치지 않았다. 당대 지식인의 시국 현실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가의 어려움을 개혁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런 중대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간취지서는 설정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잡지를 읽게끔 만들어야 하는 설득의 글이기도 하다. 취지서의 서사 방식을 결정하는데는 잡지의 창간 취지와 대상 독자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본 연구는 잡지의 창간취지서라는 근대계몽기 글쓰기 양식을 대상으로 취지서의 표기 선택 양상과 취지와 독자, 문체의 관계를 상세히 고찰하고자 했다. 앞으로 잡지 단권이나 특정 필자나 집단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 이외에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글이 다양한 잡지에서 어떤 서사 방식과 언어학적 특징을 갖는지를 추적하는 데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구장률, 「소년한반도 해제」, 『소년한반도』, 케포이북스, 2009.

권희영, 「20세기 초 잡지 《少年》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성」, 『정신문화연구』 112, 2008.

김근수, 「구한말잡지개관」, 『아세아연구』, 10권 3호, 1967.

_____,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_____,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43, 2011.

_____, 「근대 유학생 잡지의 문체와 한글체 소설의 형성 과정 : 『여자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2010.

김형철, 「갑오경장기의 문체」, 『새국어생활』4,4, 1994.

문한별,「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 학회지와 신문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2010년.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1994.

_____, 「19세기 국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국문학』 149, 2008.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4 - 잡지편』, 박이정, 1997.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서은경, 「1910년대 유학생 잡지와 근대소설의 전개과정 : 『학지광』·『여자계』·『삼광』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1.

송병기, 「개화기 일본유학생 파견과 실태」, 『동양학』18, 1988.

송철의,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한국문화』33, 2004.

_____, 『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신중진, 「개화기 신문과 잡지자료의 국어사적 현황과 분류」, 『국어사연구』13, 2011.

신지연,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재현성 : 1910년대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심재기, 「개화기의 교과서 문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1992.

양문규, 「1900년대 신문·잡지 미디어와 근대 소설의 탄생」, 『현대문학의 연구』23, 2004.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1984.

이성민, 「대동학회월보 소재 한시에 대한 일고찰」, 『퇴계학논집』14, 2008.

이유미, 「1900년대 근대적 잡지의 출현과 문명 담론 - 잡지 『조양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6, 2005.

이현희,「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1999.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_____ 「국한문체 작문법과 계몽기의 문화 의식 : 최재학(崔在學)의 《실지응용작문법(實地應用作文法)》」, 『한국언어문화』33, 2007

임형택,「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1999.

정희모, 「글쓰기에서 독자의 의미와 기능」, 『새국어교육』79, 200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5.

한영균, 「근대계몽기 국한혼용문의 유형·문체·특성·사용양상」, 『구결학회』30, 2013.

_____, 「문체 현대성 판별의 어휘적 준거와 그 변화 : 1890년대~1930년대 논설문의 한자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구결연구』23, 2009.

_____, 「『서유견문』 문체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 62, 2011.

_____, 「현대 국한 혼용 문체의 정착과 어휘의 변화 : ‘단음절 한자+하(ᄒᆞ)-’형」, 『국어학』 51, 2008.

허재영,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114,

2011.

홍윤표, 「한글 고문서의 연구 의의와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 2010.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 1908년 『대한매일신보』, 『여자지남』, 『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4, 2006.

홍종선,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1996.

한국잡지협회, 『한국 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1995.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45, 2004.

ABSTRACT

A study to Editorial Introductions of the First Issues in Enlightenment-era Magazines

Shin, You-jeong
Major in Korean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itorial introductions of the magazine's first issue which was written in Enlightenment-era in various characters such as style of writing, intent of publishing, and target readers.

In chapter 2,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agazine's issuance in enlightenment-era was studied and those magazines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The style of writing in magazines were analyzed by the categorization such as Classical Chinese, Mixed Text(the type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 Korean. It is considered that most of Enlightenment-era's magazines were written by Mixed Text, so they were divided by Han Yeong-kyun(2013)'s Categorization Method. Mixed Text in Enlightenment-era was used in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types in

magazines. It was regarded that existing Chinese writing was dissolved gradually and it also affected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language.

In chapter 4, style of writing, intent of publishing, target readers and vocabulary usage wer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chapter 3's result of writing style analysis. It shows that overseas students' journals and technical magazines which could be influenced by new knowledge were written in third type of Mixed Text, and included lots of new words. Because of the effect of closed character's intellectual group and readers, school magazines, bulletins and academic journals selected the first and second type of Mixed Text. Educational magazines and enlightenment magazines selected third type of Mixed text or Korean considering magazine's knowledge level and literacy of readers.

It is concluded that editorial introductions in Enlightenment-era magazines selected different writing style and vocabulary usage according to intent of publishing and reader's knowledge level.

Keywords: Editorial Introductions of the First Issues, Enlightenment-era, Magazines, Style of Writing, Target Readers, Mixed Text.